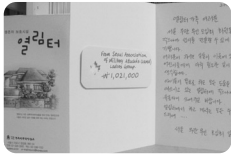


Contents



issue		
기획특집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들	2
	– 아동성폭력 근절, 성별 이종규범과 강간 문화에 도전하자	3
	–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7
	–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을 위한 운동을 하자!	10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 18대 국회에 바란다 : 처벌가능성 높이는 법을 기대한다	13
	– 내 정보를 알리지 않을 권리와 내 정보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18
	– 시스템'에 가려진 질문에 주목하라! – 여성복지시설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과 제안	21
거꾸로뉴스	간통죄 위헌제정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관기	24
survivor' s voices		
상담실에서	피해생존자와의 신선한 거리 두기	26
생존자 말하기	水的 이야기 – 연재 9th 그 사람들	28
	말하기로 가해자를 고발하다	33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38
	1박 2일 속닥속닥 열리는 “성적”인 것들과 만나는 시간	39
edutainment		
몸이야기	Your body is a buyer's market!	41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만나고 싶었습니다	44
이런 프로그램	인간을, 그리고 자유를 향하다 <발도르프 교육>	49
소모임 생각	토닥 고정칼럼 2nd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52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54
사업 review	2008년 성폭력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성과 폭력의 정치학>	56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시작되다!	57
	KSVRC 미래전망 로드맵을 위한 비전 워크숍	58
사업 preview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 / 달빛시위 / 춤테라피	59
회원소식	소모임 활동 / 훈훈한 기부 / 아낌없이 주는 나무	60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나눔터 편집팀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누가 그랬냐', '대책을 마련하자' 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는 사이 입법자들은 '적발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거나,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법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런 것들뿐이라는 반문이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리 오래 감옥에 있어도 성교육이나 가해예방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출소하고, 법정에서는 아동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아 수많은 가해자들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10% 미만이라는 신고된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소수인 벌 받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만 아무리 많아봤자 불안감과 분노는 달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동지를 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내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현실도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동 시절에 경험하는 갖은 성폭력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마을에는 가해자들이 수도룩한데, 어른들이 갑자기 새

삼 깨달았다는 듯이 행동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나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은 뻔한데, 그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게을리한 점은 차마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이의 등하굣길에만 눈의 불을 켜게 되지요.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해자 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성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귀찮더라도 내 일상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는 오랜 주장은 이번에도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묻혀야 하는 것일까요?

착잡한 마음으로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접근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우리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키라의 글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별 이중규범과 강간 문화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의 글은 '사법 실패'에 처한 현실 진단과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성의 전화 나비센터의 박신연숙 님의 글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읽으시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성폭력
근절,

성별 이중규범과
강간 문화에 도전하자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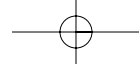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일 크게 기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유괴, 납치, 성폭력, 살해와 같은 강력범죄의 위험 수위는 점점 높게 체감되고 있는 요즘이다. 하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 교문을 지키는 어른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공포는 '사이코패스'라는 예외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옆집 사람, 분식집 주인, 학교 앞 문구점 아저씨와 같은 일상 속의 친숙한 사람들이 바로 '잠재적 가해자' 일지도 모른다는 '일상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누구와 함께 내 아이의 안전을 의논하고, 누가 그것에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을 묻게 되는 상대는, 크게 범죄 행위자, 국가 기관(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이다.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아동성폭력 근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그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법 개정,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며, 그에 대한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랫동안 국가기관의 법안, 정책을 모니터링하

면서 법안과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를 해왔다.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보의 절실함, (아동)성폭력 전담제, 아동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의 문제, 아동 성교육/가해자 교정교육은 오랫동안 상담소가 '정부 정책'에 대해 제안해온 내용이었다.¹⁾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 안전망이 크게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 제도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수립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만으로는 포괄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것은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규범과 제도의 폭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은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매우 다르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경험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도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성폭력'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기에, 각각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른

1) 이에 대해서는 표창원 교수님의 글에 언급되어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성폭력 피해에 개입하는 ‘여성 단체’의 정치적 입장은 중요할 것이다. 지금부터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여론과, 그 여론에 대한 분석, 그를 통한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있어 중요하게 가져가야할 원칙,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소녀를 ‘여자다움의 틀’ 안에, 소년을 ‘남자다움의 틀’ 안에 가두면 안 된다. 성폭력 피해의 고통은 사건 자체 뿐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사회의 해석’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론은 당시에는 사건을 대서특필하지만,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 사회와 사람들의 피해자를 보는 시선을 견뎌내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다.

우리는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고통의 내용을 상상하는가? 보통은 낯선 이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순진했던 여자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입고 이후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간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피해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반대로 아동이 여아가 아니라 남아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 장난칠 수도 있지’라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페니스를 전시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남성성’과 프라이드를 구성하는 데에 익숙한 남성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남자 아이들의 ‘성’은 (여자 아이들의 그것과는 달리) 쉽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의 일(추행)은 무시할 수 있어야 ‘남자답다’고 여겨진다. 얼

마 전,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폭력 피해/가해 사건의 경우에도 남자아이들의 피해 사례가 먼저 어른들에게 알려졌지만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여겨졌고, 이후에 여자아이들의 피해가 알려졌을 때 그것이 사건화 되었다. 이 때, 여자아이는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엄청나게 큰 일’임을 알게 된다. 여자아이의 성은 쉽게 훼손되고,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주변 어른들의 반응을 보며 알게 되고, 자신을 훼손된 존재로 정체화하며 이 정체감은 그녀의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성폭력’이 성별 규범을 강화하고, 개인의 몸이 그 규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들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통해 부모와 교사, 주변인들과 성별 규범/성적 터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성적’으로 폭력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것, 남성은 ‘그럴 수도 있지’만 여성에게는 ‘큰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것이 아동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된다.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피해 내용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이 성별에 따른 ‘성별 규범 강화’로 쉽게 치환되어 이들의 이후 삶의 지평과 관계에 대한 전망, 삶에 대한 안목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에게 스스로의 신체를 훈련하고, 위험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특히 여아의 경

우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는 ‘소녀다움’이 ‘가해자를 공격하는 몸’과 같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²⁾ 성인에 비해 ‘무기력’하다는 생각과, 훈련되지 않은 몸은 위험 상황에서 아동들을 극단의 무기력함 속으로 밀어 넣는다.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에 비해 여아는 자기 몸을 방어할 훈련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몸’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방어 정도를 낮추어 스스로를 타인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몸을 훈련하는 여아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넓게 인식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에 제한되지 않는 더 넓은 삶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여성을 창녀/성녀로 이분화하는 ‘이중 규범’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우려와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분은 성폭력 특별법에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치사범에게 ‘사형’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여론의 힘이였다. 하지만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굉장한 분노,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100% 동정과 연

민’은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 상담에서 만나게 되는 ‘(저 여자는) 꽃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 여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성적(非性的)인 존재’로 여겨지는 존재들이다. 남자아이들의 ‘자위’가 건강을 위해 ‘굳이 막지 말아야할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이다. 그러나 여아도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몸이 있는 존재이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여아들은 쉽게 ‘어른을 유혹했다’고 이야기된다. 혹은, 그 유혹에 반응한 어른의 ‘욕구’는 납득할만한 것이 된다. 여아가 ‘성적 존재’로 드러난 순간, 곧 ‘성인을 성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읽는 것은 여성을 창녀/성녀로 이분화하여 창녀는 자신을 도발하는 ‘꽃뱀’이고, 성녀는 자신에게 속한 여성으로 구분하는 가부장제의 통제 기제이다. 즉, 여아의 성을 ‘백색의 순결’에 놓아두는 것은 사실 ‘순결하지 않은=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성’의 영역을 전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 강간이나 데이트 강간의 경우, ‘남성과의 데이트, 혹은 결혼 계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남성에게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남성에게 양도했다고 여겨지기에 이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성폭력’에 대한 광적인 분노와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쉽게 가지는 ‘꽃뱀’ 의심의 관계는 동전의 양

2) <Beauty Bites Beast : Awakening the Warriors within women and girls(1998, B3 Books, SUNLAND, CALIFORNIA)> 라는 책의 저자인 Ellen Snortland는 집에 강도가 들어 자신을 위협한 경험을 한 이후, 자신이 외부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전혀 상상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 자기 몸을 직접 위험 상황에 놓고 실전에서 공격자와 대면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자기 방어 훈련(self defense courses)’의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여성됨’과 얼마나 충돌하는지를 알게 된다. 동시에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저자는 KIDPOWER라는 아동을 위한 자기방어 훈련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일하는 방송사에서 이것을 ‘아동을 위한 자기방어’로 프로그래밍하여 성공하였던 사례를 소개한다. 자기방어 훈련을 한다는 것은 단지 ‘몸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의 힘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딸이 ‘피공격상황’에 대한 모의 상황을 그려서 연습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그녀가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영역임을 인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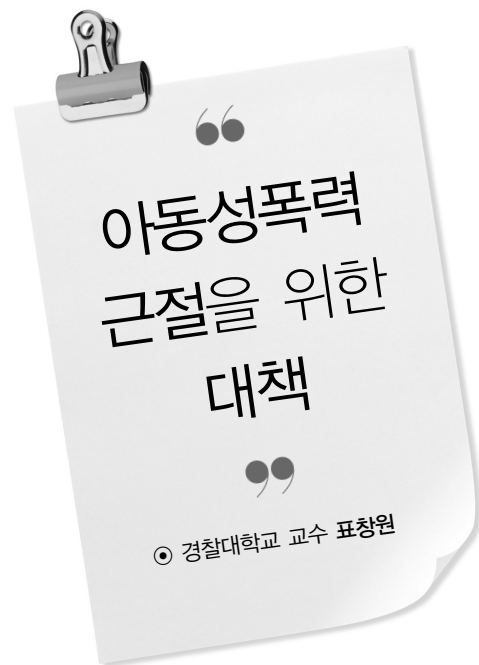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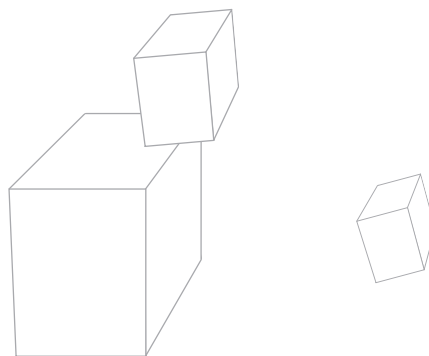


면과 같다.

그렇다면, 무성적 존재인 여아는 언제 성적 존재로 드러나는가? 그 연령은 14세인가? 16세인가? 18세인가? 늘 세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는 ‘인간’에게 있어 아동/청소년/성인의 구분짓기는 편의상일 뿐이다. 아동기에 자신을 ‘성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곧 성인이 되어서도 여성의 ‘성적 존재감’을 결정한다고 할 때, 아동성폭력을 다루면서 현실의 아동 경험과는 다른 ‘성적 무지함’을 강조한다면 피해자가 이후 통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무리가 올 수 밖에 없다.

아동성폭력 피해 사건을 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본인보다 그 부모들이 스스로의 고통과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적으로 무지한(해야 하는) 우리 아이의 몸이 성폭력을 통해 성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거나 감당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폭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성폭력을 다룬 <유진과 유진(2004, 푸른책들)>이라는 책을 보면, 동명이인의 ‘유진’이라는 두 소녀가 각자 아동 시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주변 사람들, 특히나 더욱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들의 다른 대응이 피해 소녀들에게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자녀의 아동성폭력 경험을 함께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모 스스로도 내면화한 자신의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부모 역시 함께 성장한다는 부분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해석은 사법부나 언론의 ‘왜곡된’ 시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아동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상식적 수준’의 시민들의 요구 모두 안에 존재한다. 국가 기관에게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이렇게 우리들 안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적 규범을 잠시 눈감아 주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드러나는 가해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주체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인 우리들의 열린 사고이다. 그것이 한 인간의 ‘행복한 성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공동체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계기로 우리가 아동들에게 어떤 성별 규범을 훈련시켰는지, 아동에 대한 ‘보호’가 혹시 이 사회의 위협에 대한 무기력함을 아동들이 익숙하게 느끼도록 한 것은 아닌지 함께 성찰해 볼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



성폭력은 한 마디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의 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인 그 당사자 간의 동의와 합의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표현이나 접촉행위를 할 경우 이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포함하는 피해를 유발하여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가 된다.

그런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그 발달단계적인 접촉행위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의사에 있는 ‘성적인 의사결정능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적인 접촉은 그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인 면에서 어른과 닮음없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험이나 인생전반을 관조하는 종합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의 감언이설이나 유혹, 협박 등의 위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법과 사회가 이들을 성인이 될 때 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약 80% 정도가 가족이나 이웃 등 아이가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발견하기도 어렵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반면에 가정은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어 외부의 간섭이 어렵다보니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이 구출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그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초등생 허양, 2007년 제주에서 초등생 양지승 어린이에 이어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혜진양과 예슬양이 아동성폭행범에게 유괴 뒤 살해되는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물론, 형량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요구다. 유죄가 확인된 아동 대상 성폭행범 중 20% 남짓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해 온 그간의 사정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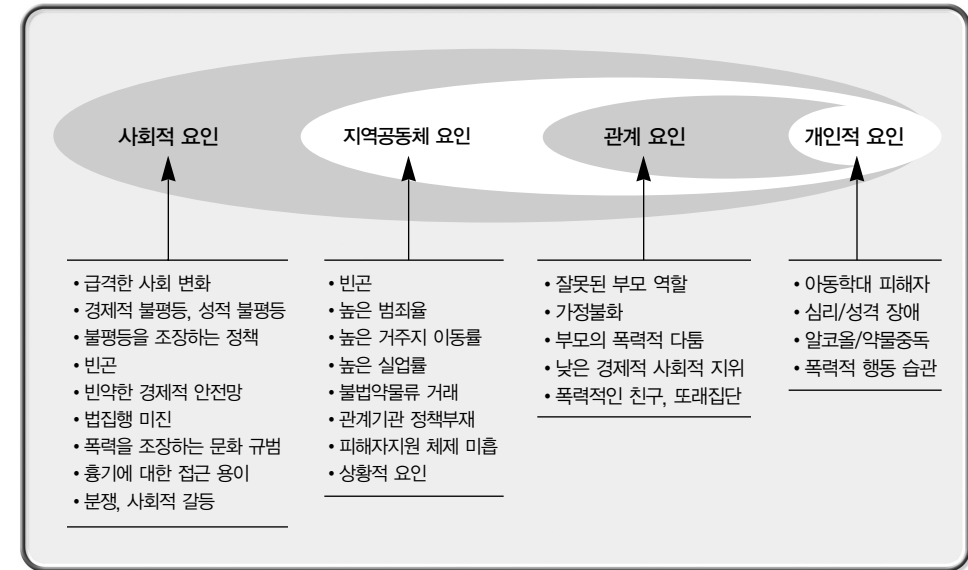
▶ 2004년 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

하지만, 형량강화만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이 예방될 것이라 기대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낮은 형량보다 더욱 큰 문제는, 6%에 불과한 낮은 신고율, 40%에 불과한 기소율, 36%를 겨우 넘는 구속율 등 대부분의 아동대상 성폭행범들이 아예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총체적인 사법실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아기호증(pedophilia) 등 정신질환이나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성격 이상의 문제가 있고 충동성이 강한 아동 성폭행범들이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형량강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피해자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제도 구축으로 신고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활동으로 체포율, 구속율을 높이는 동시에, 검찰, 법원의 인식개선으로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성폭행범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정신감정과 범죄심리학적 조사를 거쳐 '문제의 원인과 정도'를 평가하고 수감 중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혹은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출소 전에도 재범가능성에 대한 감정과 진단을 실시, 재범가능성이 있다면 출소 후에도 거주 및 행동제한과 함께 정기적인 치료 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아동대상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밀양, 가평, 남양주, 대구 등에서 발생한 초, 중, 고등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 역시 적지 않으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학교나 학원 관계자 등 '주위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 처벌'에 앞선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함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앞서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오른쪽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파악한, 아동 성폭행 등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그 대책 역시 종합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아동성폭행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정해체와 물질만능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소아기호증(pedophilia)',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 범죄적 이상성격자,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실종된 '인성교육'과 건강한 사회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등으로 인한 이상충동 및 욕구의 증가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실패'로 인한 방치 등 '가해자적 요인'들과 함께,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아이들, 과도한 학업부담과 가족과 대화부족,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 스트레스 증가가 야기한 가출 및 거리 배회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및 가정과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장치 미비 등 '피해자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 경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주민자치조직 등이 연계해 지역 내의 아동위해 요인들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아동보호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빈곤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과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아동학대와 아동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 ☞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을 위한 운동을 하자!

◎ 서울여성의전화 나비센터 박신연숙

- ✓ "무엇보다 등하교길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지요."
- ✓ "체벌하나요? 그게 생뎁내기 아니가요. 정부가 예방활동에 실제적인 힘을 쏟아주면 좋겠어요."
- ✓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애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근 아동성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또다시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등하교 길도 안심할 수 없어 불안하다. 우리 주변의 친숙한 사람들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니 누구도 믿고 살 수가 없다.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이웃이, 우리 마을이 사회적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 힘을 쏟고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성폭력 운동도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체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

외된 공간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아동성폭력, 생활에 밀접해 있는 범죄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를 많이 바꾸었고, 팔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변화속도는 어떠한가. 여성운동의 성과들이 여성 개인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켰는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중앙차원에서 전개한 운동을 지역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의 터전에서 벌여나가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운동,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때다.

사회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여성운동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힘을 모아야 한다. 아동성폭력 문제는 바로 여성과 주민 자신의 문제이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의 배려와 존중을 한다면 범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안전한 아동은 없다. 폭력추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이웃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1993년 당시만 해도 진보적 여성단체와 상담소가 시도별로 손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전국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600여개 소에 이른다. 재작년 서울여성의전화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폭력정책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폭력 예방과 근절활동은 매우 미약했다. 지역사회의 폭력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는 중앙차원이나 시도 단위의 민관협력 뿐만 아니라 시군구 지역단위, 마을 단위의 공조가 필요하다. 지역 내 경찰, 학교, 지방자치단체, 병원, 상담소, 쉼터, 복지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지역 언론, 학생들 상대하는 상점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해당기관들은 지역주민과 얼마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전 사회가 아동성범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때, 지역에서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안전한 아동은 없다.

폭력추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이웃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 의사소통의 채널을 갖는 것,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잘 알아야 한다. 누가 먼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에는 정답은 없을 것이지만, 경찰, 지자체, 학교, 병원이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지역의 단체나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폭력추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학교, 지자체, 병원도 마찬가지다. 서로 바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주민과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활동에서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 경찰은 동등한 파트너다. 파트너 관계는 권리와 권한의 동등성 못지않게, 책임과 의무 부분에 있어서의 동등성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여성단체, 상담소와의 협력에서 NGO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여성단체는 지역사회에 밀착하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지자체, 경찰의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느끼는 문제와 요구로부터 공공기관의 정책이 수립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민들이 요구만 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한다. 이런 태도가 되어 있어야 서로 간에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지역 언론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있으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파트너로 끌어들이야 한다. 학생 대상의 문구점, 약국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 되어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예방교육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가.

일회성 강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상담소들은 폭력근절을 위해 피해생존자 상담 및 지원활동, 예방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법제도 개선활동,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지역협의체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자원을 조직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상담소마다 지역여성들이 상담 자원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 자원상담원들은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례들을 의논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피해생존자의 지원자가 되고, 일상의 관계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지역활동이 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 되어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예방교육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가. 일회성 강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방교육을 통

해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또 대중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문화행사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은 단체에서 준비한 행사에 초청될 뿐, 조직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는가.

마을로 찾아들어가서 활동하다보면 자생적인 주민조직들, 봉사단체들과 접촉하게 된다. 지역실정에 대해 누구보다 밝고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있다. 이런 집단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공동체적 대응에 있어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지역여성조직에 여성주의 관점을 불어넣어 성차별적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지역사회로 갈수록 기득권을 가진 남성 중심이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 문화가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만큼 힘들고 더디다. 폭력은 피해생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지역사회가 아동 성폭력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지방정부와 시민, 사회단체가 협력체계를 활발히 할 때이다. ☪



| 18대 국회에 바란다 |

처벌가능성 높은 법을 기대한다

◎ 본 상담소 소장 이미경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특별법, 전자위치추적장치관련법 등 상당 수의 법안이 제·개정되면서 성폭력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보며 대응속도나 범위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기존의 법안만 잘 활용해도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피해생존자들이 법에 기대를 갖고 용기를 내어 고소를 했지만,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피해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법 자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로 겪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법 따로 현실 따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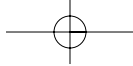
(反)성폭력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더이상 성편향적인 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생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개별적 대응을 하고, 만약 그로인해 상해되거나 명예훼손 등의 처벌을 받게되면 구명운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철학과 기능을 아직은 믿고싶다. 지난 5월 31일, 제 18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는 피해생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 관련 법안을 간략히 살펴보고, 18대 국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7대 국회,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지난 17대 국회(2004~2008)에서는 다음 <표1>과 같이 상당 수의 성폭력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법의 변화에는 밀양 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대전 연쇄성폭행사건, 용산과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 성추행미수사건,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등 온 국민을 공분케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폭제가 되었다. 일단 국회와 정부가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성폭력 문제를 고민하였으며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면서 법을 제·개정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전자위치추적장치에 관한 법률 등은 국가감시권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와 합의, 그리고 충

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재범자 등 흉악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에 밀려 급작스레 법을 만든 경향이 짙다.

먼저, 17대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표1>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했다. 둘째, 피해자 보호주의, 특히 아동성폭력피해자 구제책 중심이다. 셋째, 전자발찌 등 국가 감시권력을 강화했다. 넷째, 산발적인 법집행 구조(여성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를 양산했다. 다섯째, 친고죄폐지, 공소시효정지 등 현안에 무관심했다.



쟁점과 입장

〈표1〉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관련 법	제·개정 일시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	2006. 10. 27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 장애인 보호시설 장,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 •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조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친고죄 범위 축소(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및 구금 감호자) • 성폭력 피해자의 전담조사제 도입 • 진술녹화제 적용대상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 •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의 일반화 •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강화
	2008. 5. 22 국회통과 (미공포)	• 13세 미만 강간: 5년 이상의 형에서 7년이상 유기징역 • 13세 미만 유사강간 :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형으로 상향조정. 항문에 신 체일부, 도구 삽입도 유사강간 행위로 추가 • 13세 미만 성폭력 후 살해 :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 • 13세 미만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으로 상 향 조정 • 13세 미만 성폭력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	2005. 12. 29	• 청소년 성사는 행위의 범위 확대, 고소기간 2년으로 연장 • 12~14세 미만 가해 청소년 소년부 송치 • 가해자 세부정보 등록, 5년간 취업금지
	2007. 8. 3	• 친권자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상실신고 청구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상세정보 열람권자에 청소년의 보호자도 포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 : 5년 → 10년 • 성범죄자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강화 : 5년 → 10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007)	2007. 4. 27	• 상습적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부착
	2008. 5. 22 국회통과 (미공포)	• 발찌부착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 • 법시행 일시일시 조정 : 2008년 10월에서 9월로 1달 앞당김 •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도입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국가인권 위원회법 (2001)	2005. 7. 29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성희롱 사안 국가인권위법으로 이관(*1999년 성희롱을 규제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존치)
형법(1953)	2004. 1. 20	• 경합범의 구성요건 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 정된 죄로 개정
	2005. 7. 29	•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구, 현행법)	2007. 12. 21	• 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 나이, 혼인여부, 성적지향등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 특별배려/ 교정자문위 설치

나눔터
info. in common

관련 법	제·개정 일시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1954)	2007. 12. 21	• 재정신청 확대(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가능, 비공개, 사건기록열람 등사 제한) •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 확장 (* 2004년, 2006년에도 피의자(피고인) 관련 형법 개정 있었음)
	2007. 11. 23	• 공소시효 일괄조정(강간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규정 •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구속사유 심사시 피해자 위해 우려 고려
치료감호법 (2005)	2008. 5. 22 국회통과 (미공포)	• 치료감호 대상에 성폭력사범의 추가(소아성기호증, 성적가혹증 등 성적 성벽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2003)	2008. 3. 14	• 학교폭력 범주에 성폭력 포함 • 피해학생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아동복지법 (2000)	2006. 9. 27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피해아동 전문치료기관 입소
범죄피해자 보호법 (1987)	2005. 12. 23	• 범죄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지급 근거마련
	2007. 12. 29	• 피해자 구조금 지급시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구조금 지급신청기간 연장(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 2년)
소년법(1958)	2007. 12. 21	• 가해 아동나이 10세까지 보호처분 가능
• 기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적괴롭힘 행위에 관한 특례법안 등은 회기만으로 자동폐기(2008)		

쟁점과 입장 - 18대 국회에 바란다

18대 국회, 이것만은 꼭 마련하여야!

성폭력 신고율이 아직도 10%미만에 머물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폭력특별법상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신고율과 신고된 사건이 재판조차 받지 못하는 낮은 처벌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성폭력 가해자 엄단'을 위해서는 관련법 형량의 상향 조정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성폭력 관련 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 등 실효성이 낮고,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형법의 개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 특별법 위주의 입법은 형량의 불균형, 중복규율 등의 문제를 일으켜 성폭력 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법적용에 있어 자의성을 크게 하는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



일된 관점에서 형법의 대대적이 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성폭력특별법 중 처벌에 관한 조항을 형법으로 재정리하고, 법에서 보호하려 하는 법익을 명확히 하여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변경하여야 한다. 형법에서 1995년 이후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협의실’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를 받아들여 친고죄 폐지를 통하여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아내 강간, 비동의간음죄를 범죄화 하고,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형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17대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실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손쉽게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특별법의 개정이 아닌 성폭력 법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엄벌주의를 넘어서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한 전담 수사관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에서는 전담 재판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인권감수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의 특성상 증인이 있기 어려움을 고려한 수사 방식의 개발과, 전문성을 키워야할 전담 수사관/판사의 수요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보직순환으로

이동도 잦다. 따라서 현재의 성폭력 전담제는 그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 현실화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입법이 요구된다. 다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고유예·집행유예 제한 입법은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키게 되고, 수사·재판 실무자들의 의식개선 노력 없이 손쉽게 입법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제화 흐름에는 반대한다.

3 피해자 권리보장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신청, 진술 녹화, 비디오중계진술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등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확대 방안이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등의 권리보장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보호할 존재라는 시각을 넘어 범죄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4 공교육에서 성/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번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보듯이 어린이들이 접하는 성문화라는 것은 상업주의와 결합한 포르노화된 매체들이고, 이 매체에서의 이미지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갖는 성인식에 반영된다. 무엇보다 잘못된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문화를 내면화한 개인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연간 10시간씩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적위주의 대단위 강의나 최소한의 교육만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들의 의식을 깊어보고 성평등한 관점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인권감수성을 키워가야 하는 특성상 소규모 토론식 수업 등 효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고죄를 폐지해야 하며 공소시효의 정지 및 배제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사·공소제기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하는 친고죄 규정의 고수는, 실제로는 가해자와 그 가족의 끈질긴 합의중용 등 친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성폭력이 친고죄로 규정됨으로써 고소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는 점도 문제이며, 이미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총 82명의 국회의원이 5개 법안을 제출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한 바 있음에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친고죄를 폐지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미봉책일 뿐이다.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현행 공소시효제도도 강제추행은 7년, 강간은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어, 어릴적에 피해를 입고 그 의미도 모르고 있다가 성장 후에 고소를 결심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의 논리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성인이 될때까

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의 DNA가 수집되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43명의 국회의원이 4개 법안을 제출하여 아동성폭력에 있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전체적으로 연장되었으나 아동성폭력의 특성은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교육은 집행유예시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기에 실행을 받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수성과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물론 17대 국회에서 치료감호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일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치료감호법의 내용은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뒤에야 치료가 시작되므로 치료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성폭력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일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성인식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제와 같은 강제적인 치료방법보다 수감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성찰하는 새로운 태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내 정보를 알리지 않을 권리와 네 정보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활동가 김홍미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총 5개의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몇 달만에 과도한 정보공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도한 정보공개, 서류를 발급하는 공무원조차 “이게 나오는 게 맞아?”라고 묻더라

4월 15일 조선일보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한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아이들 여권을 만들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과 남편이 양부, 양모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4명의 아이 중 친부모가 있는 하리(가명)의 증명서에는 부모란에 친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본(本)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이 증명서를 떼 주던 과천시청 직원조차 당황스러워하며 옆 직원에게 “이게 나오는 게 맞아?”라고 물었다는 웃지못할 설명이다. 담당공무원의 말대로, 정말 친부모의 정보가 나오는 게 맞을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지난 3월부터 수집한 결과,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의 수준을 넘어 인권침해의 수위를 넘고 있다. 혼외자로 태어나 입양되었고, 성인이 되어 한번의 이혼을 겪은 뒤 재혼하여 평온을 찾았다는 A씨는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나에게 팩스로 보내왔다. 이 서류 한장이 어렵게 찾은 안정과 행복을 깨뜨릴 수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체 어떤 정보가 들어있길래?

본인 / 부(친부), 모(친모) / 양부, 양모 / 배우자(현재) / 자녀(현 배우자와 성이 다른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



한 장의 서류를 통해, 우리는 “혼외자로 입양되었고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재혼녀”라는 이 사람의 생애사를 모두 알게 된다. 이것은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일 뿐 아니라, 나도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다. 대법원은 이런 정보공개에 대해 “법률적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가족이 맞고, 그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것.

너무. 무책임하다.

내 정보를 알리지 않을 권리와, 남의 정보를 보지 않을 권리

법률적인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에만 발급해 주면 될 일이지, 이런 정보를 몽땅 가족관계증명서라는 한 장의 서류에 모다 담을 필요는 없다. 사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 부모자녀관계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이고, 그렇다면 친부모의 정보나 입양기록 등은 서류를 제출하는 쪽도 부담이며, 불필요한 정보를 눈으로 봐야 하는 기업에서도 부담이다. 내 정보를 알리지 않을 권리와 함께 남의 정보를 보지 않을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으니 말이다.

“법률적인 가족을 보여줄 뿐”이라는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문제 등의 법적인 송사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옳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명서 발급제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규제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앞서 말한 한씨 자녀 친부모의 주민등록번호는 언제 누구에게 필요한 정보일지 생각해 보자. 하리가 원할 경우 나중에라도 친부모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정보를 보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리가 원하던 원치않든, 하리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던 과천시청 직원과에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하리에게도, 하리를 입양한 한씨에게도, 하리의 친부모에게도, 과천시청 직원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내 정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공개해 놓고 상처도 너의 몫, 낙인도 너의 몫이라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대책없는 무지다.

‘가족’이 뭘까 : 함께살아온 시간을 거부당한 비-혈연의 사람들

한편, 정작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문제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직장의료보험에 부모님을 올리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던 B씨. 평생 친어머니로 알고 살았던 어머니가 계모라는 것을 안 것도 바로 그 증명서 덕분이었다.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라 1살 때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모(母)로 기재되어 있어, 지금의 어머니가 직장의료보험에 올릴 어머니임을 증명할 길이, 현재의 증명서에는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이긴 하지만 B씨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것.(여기에서 한국-기업-정부-공공기관의 가족중심적인 문화/제도에 대한 논의는 열외로 하자)

20년동안 남편의 아이 둘을 키웠다는 C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없다. C씨가 평생 키워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였다.

결국 가족관계증명서는 실제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증명’하지는 못하면서, 법률적인 상속관계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이상한 증명서를 만들어낸 꼴이다.

국가여, 내 정보는 나의 것, 너의 것이 아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친권자 변경기록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이혼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혼인관계증명서의 문제 역시 내 정보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된 정보인권 침해 사례다.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상이 심란한 나에게, 어느날 한 친구가 물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왜 내가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에 공개되어 있느냐”, 게다가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은 또 왜!!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증명서에 나와있느냐”는 것이다. 친구의 분노는 정당했다. 비단 사회적으로 매몰될만한 (이혼이나 비혼모와 같은) ‘낙인’ 찍힐만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허(許)하지 않은 정보는 결코 일방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불행히도, 관장기관인 대법원에게 이런 속깊은 의지는 발견하기 어렵다. 여전히 국민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대법원. 이들과의 싸움은 벌써부터 그 힘겨움이 예상된다. 허나, 소귀에 경읽기가 될지언정 외쳐야 겠다.

“국가여, 내 정보는 나의것이니,
내가 필요로 할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라!”



‘시스템’에 가려진 질문에 주목하라!

| 여성복지시설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과 제안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임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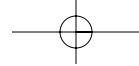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효율성. 편리하고 정확한 느낌의 단어다. 여기에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욱 깔끔해진 다. 더구나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화! 바쁜 일상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복잡한 서류와 체계가 착착 정리되는 간편함, 다양한 정보의 축적에 편리함까지 줄 것 같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단어에 대한 긍정성을 부여하며 이를 쫓아가는 사회, 아주 위험하다. 지금부터 이 우려의 지점이 무엇인지, 즉 정보화의 문제점과 고민을 200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여성복지시설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행정시스템과 관련지어 던져 보고자 한다.

서울행정시스템이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시·군·구의 행정업무를 일원화, 통합하여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여성복지시설이라 불리는 상담소, 쉼터 등의 상담현장도 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회계, 후원금, 상담내용 관련 사항 등의 정보 입력 요구. 그런데 이

입력 항목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담의뢰인의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 시설종사자의 주민번호, 주소, 신장, 혈액형, 시력, 종교, 취미, 특기 등이 필수 입력사항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모든 내용은 중앙 서버를 두고 정보를 집적하여 중앙 부서가 관리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상담의뢰인의 정보, 피해자정보, 가해자정보, 상담내용, 시설종사자의 사항 등의 개인 정보가 정부의 중앙 서버로 집적되어 관리되고 통제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 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의 위험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의 키가 되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공간의 데이터베이스들과 ‘통합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연계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내 정보를 활용해 쓸 수도 있다. 어느 날 시설종사자로 등록했던 나의 주민번호를 찍었더니 개인 대출내역과 병원 기록부, 비디오테이프 대여 목록이 뜰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니 어떻게 유출되고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아닌가.

1) 반성폭력운동 제도와 대응모임 긴급 토론회 [서울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제문 참조(2008. 5. 8)



| 목적 명확, 수집 제한 등의 규범들¹⁾ |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국제, 국내 규범들이 존재한다. 정보인권 침해 기준과 관련 국제규범인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개인데이터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것 수집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 그 이용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목적한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여성복지시설시스템은 수집제한의 원칙을 지키고 있나? 목적이 명확한가? 안전확보가 되어 있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상담에 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자 하는 이 방대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기는 한가?

이러한 질문은 2002년부터 2004년 즈음, 정부가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내세우며 추진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교원단체가 정보인권침해 요소가 내포된 교원통제도구임을 주장하며 싸웠던 과정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관련 권고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함에 있어서도 위

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남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는 것이 권고 내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적관리하는 NEIS의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새울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NEIS가 교육행정업무의 획기적인 업무효율화 방안이라 보기 어렵고,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스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정보화 시 그 목적과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고려 사항에서 간과한 채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복지시설시스템 역시 NEIS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닌 상태이다. 전산화 시스템에서의 개인 정

보 유출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애초에 꼭 필요한 개인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대한 개인의 정보를 목적과 필요성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적하고자 하고, 정보의 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도 못한 채 오직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높이는 행정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

상담 현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서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지자체로부터 요청받거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서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새울행정시스템의 구축으로 제출 자료를 줄일 수 있고 손쉬운 회계 프로그램이 생겨 편리하다는 정도의 기대와 ‘개인 정보의 중앙 집적’이라는 문제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현실을 보면 새울행정시스템이 상담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 실제 각 상담소나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상담일지, 전화상담의 경우 내담자에게 묻지 않는 주민번호, 성명 등의 입력, 익명자로 입력했을 경우 자료 찾기의 어려움, 각각의 상담소가 원하는 다양한 통계 활용 방안의 부재, 전적으로 시스템을 위한 입력이라는 업무 등이 주어진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관리 항목에는 주민번호 외에도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비롯 임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의 과정 등 상담현장의 활동가에 대한 인사권을 정부에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읽

힌다. 상담소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보고하는 체제 역시 이후 상담소와 각 시설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위축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담현장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상담통계는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적인 입력과 평가이기에 상담의 내용보다는 상담건수에 신경을 쓰게 된다. 업무 내용 자체가 시스템에 맞춰 변질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자율성 침해와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울행정시스템이 이미 시행단계에 있으나 단순히 어떤 항목을 빼거나 넣는 정도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즉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책상 문제점, 정보의 수집과 관리상의 문제,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싸워야 한다.

우선 정부가 여성복지시설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상담의뢰인의 정보, 피해자정보, 가해자정보, 상담내용, 시설종사자의 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통제/관리하는 현재 새울행정시스템의 등록,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중앙 집중 방식이 아닌 상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충분한 비판없이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효율성’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간통죄(형법 제 241조)

위헌제청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관기

◎ 나눔터 편집팀 아름

일시 2008년 5월 8일 오후 2시

장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목영준, 민형기, 이강국, 이동흙, 이공현, 김정대, 송두환

출석당사자 <간통죄는 위헌! 폐지 찬성> 청구대리인 | 임성빈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간통죄는 합헌! 폐지 반대> 법무장관 대리인 | 한상대 법무실장

간통이란 법적 혼인관계로 등록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이를 ‘국가에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간통죄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여서 배우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데,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 후 재결합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취소로 간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및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존속되고 있는 간통죄는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폐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근대법 상에 처음 도입되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에는 아내와 그 상대 남성 모두를 처벌하였으나, 남편이 간통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의 개정 이후에는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의 정신에 따라 쌍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입법 취지로 ‘여성의 경제적 생활관계 보호’와 ‘축첩과 같은 봉건적 폐해 철폐’를 들곤 하지만, 간통죄의 초기 형태를 보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남성에게 예측된 것으로 보는 봉건적 색채를 그대로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생활관계 보호’를 위해서라면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들도 있지요.

간통죄에 대한 위헌제청 헌법소원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1990년, 1993년, 그리고 2001년에 간통죄는 세 번 합헌결정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간통죄

규정이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2001년에는 간통죄에 관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니 국회에서 해결하라며 합헌으로 결정났는데요. 그렇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1. 간통죄가 가정 및 여성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 형사 정책 상 형벌의 억제효과나 제사회 효과가 거의 없다
3.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되어 국가형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4.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5.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6. 그러므로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이동흙 헌법재판관은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8년 전에 냈는데 지금까지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얼 했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대리인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론 추이를 많이 봐 왔는데, 여전히 간통죄를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하기에 따로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며 여론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뭐 저절로 바뀌나요? 이런 법의 실상, 보완 및 개정은 법무부에서 고민하고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오간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헌제청 신청인의 대변인으로 나온 임성빈 변호사

는 간통죄가 사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에 속한 영역에 국가적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감정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강요하는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다양함에도 오로지 타인과의 성관계 여부만을 기준으로 벌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파탄낸 쪽의 책임을 적절하게 묻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성적성실의무’ 등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 형벌에 의해서 혼인제도와 성도덕의 보호를 달성하려고 하면 형벌의 과잉이 된다면, 간통피해자의 보호는 형법이 아닌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신청인의 대변인으로 나온 강문대 변호사는 간통죄가 입법 취지의 규범적 의미는 사실상 몰각된 상태에서 복수,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통죄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운명규정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침해되며, 윤리 및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을 개입시키는 것은 헌법 제37조 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간통죄를 징역형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간통죄의 위헌결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장관 대리인 한상대 법무실장은 ‘간통죄의 위헌논란은 단순히 형법법규 한 개 조항의 위헌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및 가족생활의 존립과 관련된 매

우 주요한 문제’라며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로는 첫째, 간통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보다 더 크다는 점, 둘째,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지난 합헌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간통죄 존치의 폐해가 더 크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이 확인될 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간통죄가 갖고 있는 몇몇 법이론상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며 곧 있을 형법전면개정 때 간통죄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그에 따라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예전에는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도 간통죄가 ‘여성의 경제적 생활관계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기에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삽입성관계’로만 전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에 대한 실질적 대안과 인식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는 이제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 자기인생결정권, 바람직한 가족관계 및 성가치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입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곧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겠지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하여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 ☺

간통죄, 이런 면 웃기다!

1 간통죄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 발생하며, 따라서 동성 애인과의 간통은 배우자에게 알려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간통죄는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성립된다.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용서한 것으로 간주해 간통한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다. (간통은 사전 허락을 받거나 사후 용서를 받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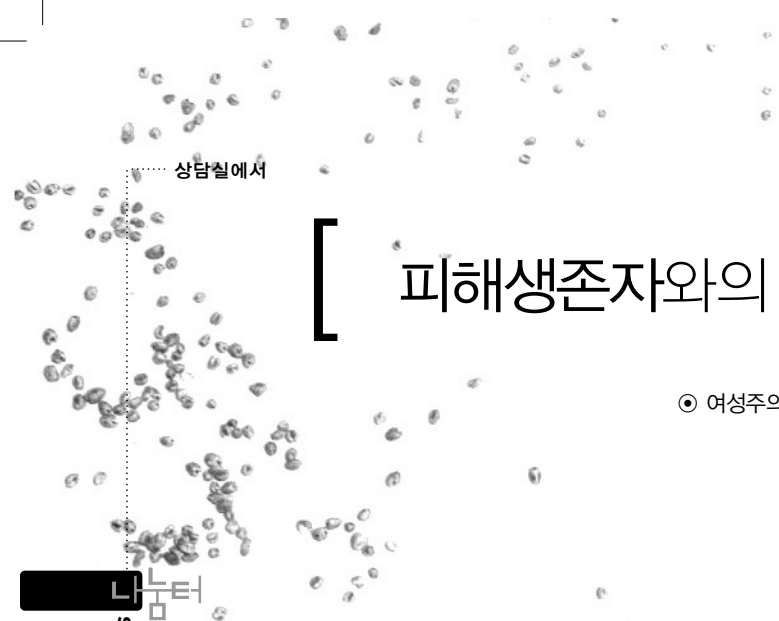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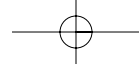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3 간통죄는 이혼이 선행돼야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법원도 ‘그만한 일로 이혼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못한다.

한상대 법무실장 |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통죄를 처벌하여 왔다.

임성빈 변호사 |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남용되어서 무분별하게 행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의식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조대현 헌법재판관 | 간통죄는 혼인제도와 혼인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소하려면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혼인관계를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과 맞는 것인가?

한남한남



상담실에서

[피해생존자와의 신선한 거리 두기]

◎ 여성주의상담팀 이어진

나눔터
survivor's voices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좌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좌절이란 매번, 매순간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별적 역동과 관계맺음에 기반한

다. 상담실에서 전화상담을 주로 하는 자원활동가, 면접상담을 주로 하는 상근활동가, 이
들 모두는 상담 후 자신의 상담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가 한 상담이 제
대로 된 것인지’, ‘지원방향은 맞는 것인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체계는 무엇
이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의 시작과 끝은 ‘피해자’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에 102% 동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폭력피해 이후 상담소를 찾는 피해자, 상담이라는 공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
한 ‘단시간 사건해결’라는 전제조건들이 조합되면 온전히 피해자를 믿지 못하고 판단하
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사실 오만가지 색깔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내가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혼란, 어려
움, 무기력 속에서 자신에게 손해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이다.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일순간에 바꿀 수 없는 상
황에서 성폭력피해라는 문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하는 피해자를 볼 때, 가족주의라는 껍데기에 빠져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돈을
퍼다 주는 피해자를 볼 때, 같은 가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재피해를 경험하는 피해자를
볼 때, 가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끊임없이 할애하는 피해자를 볼
때, 마음은 분노하면서 몸은 가해자에게 가 있는 피해자를 볼 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
지만 사건해결을 악화시킬 뿐 진전이 없는 피해자를 볼 때 나는 마음이 급해진다.



상담실에서 _ 피해생존자와의 신선한 거리 두기

그녀의 협상력을
‘얼마만큼’ 믿는가?

피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
로 결정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당장 성폭력피해를 해결하는 문제와 일상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볼 때면 내가 말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표현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라고 나를 상담자인척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혼계를 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의 사건 해결을 위해 몸소 뛰는 의지를 발휘한다. “당신의 결정권과 협상력,
해결능력 모두를 믿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힘들잖아요. 당신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
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올 수 없는 이 상황과 기회를 망쳐버릴 순 없잖아요. 그
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당신의 자율성과 결정권은 잠시 미뤄주세요. 아주 잠시 말이죠.”

조금 거칠게 표현되긴 했지만 내안에 있었던 솔직한 내 마음이다. 피해자에게 화나고, 속
상한 마음들이 결국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을 가진 나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피해자와 내가 최선을 다해 노
력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끝을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속상해했고, 울분을 토하
기도 했지만 ‘제대로 포기’했다. 사건해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자신
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그게 끝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
게 피해자가 후련한 마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온전한 능력 모두
가 발휘되어야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좌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질문
에 ‘원칙??’을 이야기 하고 싶다. 지원자로써 우리가 합의했던 여성주의적 지원 원칙을 내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신선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자율성과 결정
권 그리고 그들의 협상력을 오로지 믿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과 나를 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



생존자 말하기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꼭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채워지며, 연재 혹은 단화로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기 아홉 번째 이야기와 '진'님의 사연이 실립니다.

연재 9th

그 사람들

◎ 水

초등학생 시절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한 트럭이 우리 옆에 멈췄다.

“얘들아, ○○국민학교 어떻게 가는지 아니?”

“네, 쪽 가다 저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되는데, 디게 가까워요”

“그래? 너네 거기 다니니?”

“네”

“그럼 같이 타고 가면서 알려주면 되겠네, 어서 타라”

“네”

그 아저씨는 도통 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수진이와 나에게 길을 물었고, 길가로 걷고 있던 나는 얼른 트럭에 올라탔다. 수진이에게 학교에서 보자는 빠이빠이를 남기고, 아저씨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조금 가서 오른쪽으로 차를 몰았다.

“꼬마야, 저기 끝에 위험하니까 여기 가까이 앉아라”

나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트럭의 세 칸짜리 의자 중 가운데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한쪽 팔로 나를 끌어안았다. 더 깜짝 놀란 것은 짧게 자란 수염이 잔뜩 난 얼굴로 내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었다. 까칠까칠한 수염에 볼이 쓰라렸다.

“아저씨 왜 그래요, 내려주세요”

“가만있어봐”

“아, 내려달란 말이에요, 아 내려줘”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아저씨는 학교 가는 길이 아닌 곳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당시 재개발로 여기 저기 빈집도 많고, 나지막한 야산도 많은 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치고, 발로 찼다. 큰소리로 울면서 계속 내려달라고 소리쳤다. 아저씨의 팔을 뿌리치고, 조수석 의자 맨 끝에 붙어 앉아 계속 소리치며, 마구 발길질을 했다. 아저씨가 차를 돌려 다시 학교를 향해 운전을 했다. 나는 계속 내려달라고 울며, 난리를 쳤다. 학교 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한 둘 보이자 좀 마음이 놓였다.

“빨리 내려주세요”

“자, 여기지? 내려”

아저씨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었다. 우리 학교 후문에 얼른 내려주고는 횡하니 가버렸다. 볼에 남은 따끔거리고, 쓰라린 아저씨의 수염느낌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갔다. 괜히 아이들이 내 볼을 쳐다보고 물어볼 것 같았다.

“너 볼이 왜 그렇게 빨개?” 라고,

아무도 내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저씨 수염이 닿았던 볼이 부끄러웠고, 어른들이 아시면 웬지 나를 막 야단치실 것 같았다. 선생님들께도, 외할머니에게도,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바보같이 길을 물어보는 아저씨 트럭을 탔다고 혼날 것도 같고, 볼에 남은 화끈거림을 뭐라 설명해야할지 알 수 없기도 했다.

그날은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트럭아저씨의 수염자국이 남은 내 볼이 신경 쓰였다. 집에서도 얼마나 외할머니가 내 볼의 수염자국을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날은 나에게 “쓰라린 볼파구니”로 기억되는 날이지만, 어느 누구와도 그 쓰라림을 나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또 다른 찝찝한 기억이 있다. 우리 동네에는 동갑내기 아이들이 많았다. 학교에서는 놀지 않아도 동네에서는 동갑내기 아이들과 소꿉놀이, 숨바꼭질, 고무줄놀이 등의 놀이를 함께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뽀박질을 잘하지 못해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서 그다지 우수한 놀이꾼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로 깎두기로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한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우리는 너무 부러워 그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우르르 따라다니기까지 했다. 그만큼 우리 동네가 가난했던 모양이다. 특히 우리들은 키가 작아서 그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는 없었다. 하루는 그 오빠가 우리들이 놀고 있는데 와서 자전거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오빠, 나요”

“오빠, 나부터 태워줘”

우리들은 서로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도 높였다. 오빠는 순서대로 태워주겠다고 하더니 나부터 뒤에 태워주었다. 나는 너무 신이 났다. 동네에 있는 내리막길을 단번에 신나게 내달려 아랫동네에 있는 학교 운동장까지 순식간에 갔다. 신나고 재미있었다. 오빠는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작은 야산 쪽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산 앞에 멈춰서더니 한쪽 손으로 나를 들어 안았다. 당시 나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고무줄치마를 입고 있었다. 오빠는 내 치마가 말려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꼭 끌어안고, 오빠 가슴 쪽에 치마가 말려 올라간 곳 내 속옷부위를 닿게 하고는 지금말로 하면 “부비부비”를 하는 것이었다. 산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났다.

“오빠 그만 가요, 우리 할머니가 찾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오빠 올라가요. 저녁 먹을 시간되면 할머니가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 있어봐, 알았으니까”

오빠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우리 동네로 올라가자고 했다. 그렇게 조금 있더니 오빠는 다시 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올라왔다. 내려갈 때는 같이 타고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나만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그 오빠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왔다. 오빠와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없었고, 내 친구네 오빠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나 싶었다. 나에게는 길고 긴 시간이었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모여 놀면서 오빠가 자전거를 태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오빠는 또 다른 친구를 태우고 학교운동장으로 내려갔다. 집의 어른들한테 말하면 그 오빠네 엄마도, 친구도 알게 될 것 같아 왠지 부끄러웠다. 그 뒤에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 오빠에게 자전거를 태워달라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동네에서 그 오빠를 볼 때면 눈도 마주칠 수 없었는데 그 오빠는 평소처럼 나와 친구들을 대했다. 우리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슬슬 그 오빠를 피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지내다 그 오빠네 집이 이사를 갔다. 그 후 오빠와 있었던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글을 쓰다 보니 이런 기억들이 떠올랐고, 내 잘못도 아닌데 싫어 정리해보기로 했다.

초등학교 때 한번은 담임선생님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러 가시는 동안 우리 반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요즘은 기간제 교사가 들어오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결하고 넘어갔었나보다. 아무튼 나는 당시 사십 살 정도의 남자선생님 반에 배치되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이뻐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만 이뻐했다. 특히 원래 그 선생님만의 어떤 여자아이를 이뻐해서 늘 심부름도 시키고, 음악시간에는 그 아이를 불러내어 무릎에 앉히고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하는 게 이뻐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었다. 그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오는 날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힐 때도 너무 꼭 끌어안고 있어 보는 게 어색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의 그런 “이쁨”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군거리곤 했다. 그 선생님 반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의 “이쁨”을 경험하고 기분 나빠하는 여자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저질”이라고 했다. 나는 저질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다행히 선생님은 나를 이뻐하지 않았다. 담임선생님께서 아기를 낳고 돌아오셔서 우리 반으로 돌아갔다. 나는 어느 날 국어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며 손을 들었다.

“선생님, 애들이 0-0반 담임 선생님 저질이라고 하던데요, 저질이 무슨 뜻 이예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셨다.

“00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앉아”

저질에 대한 설명은 해주시지도 않고, 앉으라고 했다. 췌 궁금한데, 선생님도 모르나? 나는 어렵פות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듯도 했다. 저질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기도 했지만, 사실 나는 질문

하는 형태를 빌어서라도 우리 선생님께 그 선생님의 저질스런 행동을 알리고도 싶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 후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정확한 뜻을 알긴 했지만, 저질 선생님의 “이쁨”의 표현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의 이쁨을 독차지하는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까지 당했다. 왜 그런지 그 여자아이가 안쓰럽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같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학부모들과 아이들도 문제제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는 “저질”이 뭔지도 몰랐고, 말해주지도 않는 분위기였다.

또 다른 그 사람을 접하게 된 곳은 지하철이었다. 하루는 아빠란 사람과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아빠란 사람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내 몸에 바짝 붙어 서서 몸을 부벼대거나 그 징그럽고, 추한 무기를 대고 있곤 했다. 더러운 새끼, 지금 생각해도 그 새끼는 몸에 살아 꿈틀대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

창밖을 보며 서있는데 그 새끼가 내 뒤에 서서 또 그걸 내 몸에 대고 움직거리며 서있다. 그걸 피했다가 몇 번은 내려서 맞기까지 했다. ‘니가 뭐 성모 마리아라도 되냐?’로 시작되는 미친놈 뽀소리를 듣고, 맞기 싫어 그냥 내릴 역을 세어보며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하철 아 좀 빨라라, 속도 좀 내서 얼른 나를 내려주렴.

“미친 새끼, 저리 안 가?”

그 사람 목소리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나이드 할아버지뻔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며 도망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 뒤로 오더니 나만 들릴만한 목소리로 지껄인다.

“야, 이년아, 판 놈이 뒤에서 만져주니까 좋냐? 내가 잠깐 저 쪽에 가서 서있었는데 아주 저 늙은 놈이 니 뒤에 와서 엉덩이 만지고, 난리 났드만, 피는 못 속인다니까, 지에 미가 예전에 늙은 놈이랑 붙어먹더니, 이년도 똑같아”
“난, 아빤 줄 알았거든”

어쩔 이 말을 아주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듣기도 했겠지, 이게 딸과 아빠란 사람이 나눌 대화란 말인가? 난 정말 아빠란 사람이 내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개새끼였다니. 더러운 새끼들. 몸과 생각, 행동을 그제 다 지배하는 것 같은 새끼들. 저 인간은 지가 만들어 놓은 엄마에 대한 이상한 시나리오를 사실이라도 되는 냥 아무렇게나 말한다. 저 새끼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인격도, 얼굴도, 몸도 없는 자지만 있을 거야. ☹

〈다음 호에 계속〉

■ 水의 한마디

얼마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 아이에게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니 같이 가자고 말하면 따라가는지 지켜보는 내용이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엄마와의 철석같은 약속을 잊고, 낯선 사람을 따라 차에 올라탔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 상 그러한 반응이 정상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니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비정상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건지, 아이들에게 물으니 자기들이 보기에 상냥하고, 착한 사람 같았다고 답했다. 엄마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야단치듯 말했다. 어린이 유괴, 성폭력의 예방주사를 아이들에게 놓으려는 모습 같았다. 예방주사는 조금의 병균을 넣어 그것을 몸이 견디고, 항체가 생겨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 사회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 예방책을 말하곤 한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예방주사는 누구에게 놓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은 야단치고, 다그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하려는 것 같다.

그럼 악한 성폭력을 당하게 할 것인가? 항체가 생겨나 더 심한 성폭력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도록. 아님 무서운 사례를 계속 이야기해주어 겁을 주고, 그 겁을 집어먹어 매사에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도 다른 의미의 성폭력피해라고 생각한다. 모두다 잠재적 피해자이고, 몸으로만 당하지 않았을 뿐 정신적, 감정적 성폭력피해를 경험한다는 착각마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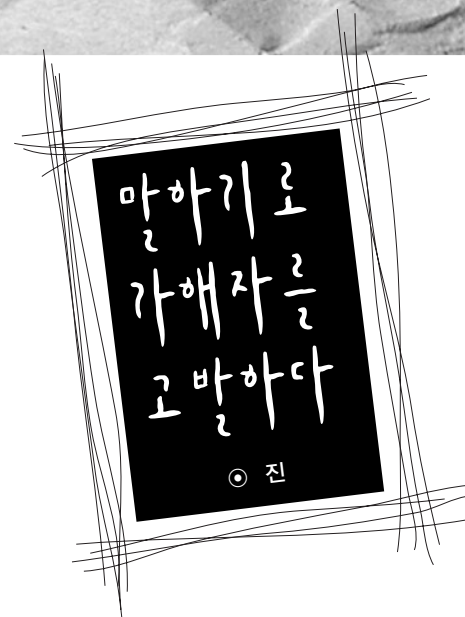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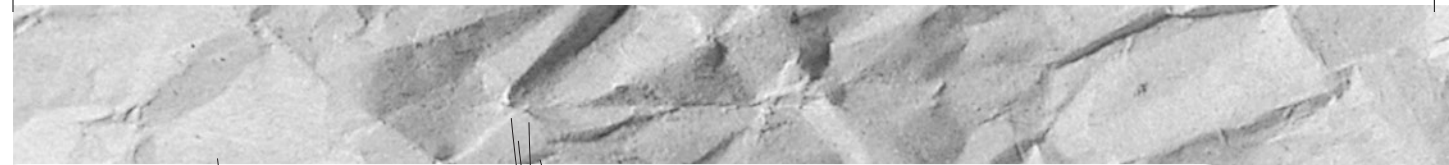
성폭력의 예방은 당할지도 모를 사람들이 조심하고, 의심하는 방식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예방주사는 우리 모두가 맞아야 하는 게 아닐까? 내 아이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성폭력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가 또한 이 사회이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좀 더 쉽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모든 사회성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키워내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이들과 여성들이 혼나고,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이 겪어내고, 극복한 일들에 대해 영웅담처럼 시원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들이 진짜 예방주사가 되지 않을까?

내 짧은 삶 속에 아빠란 그 사람 이외에도 존재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꼈던 지점들을 이제는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일로 인해 힘들어도 입 다물고, 야단맞을까봐, 동네 창피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의 일들을 새롭게.

나에게 “그 사람들”과의 일은 비밀이 아니라, 상처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지, 경찰에 가서 진술할 때도 뺨을 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 기록하기로 했다. 그들에게는 그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일지 몰라도 나는 치유를 위해 몸부림치고,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자랑스러운 치유의 역사이자 상처였기에. 그것들이 나에게 제대로 아물지 않아 썩어가는 흉터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아문 상처로 온전한 내 삶이 되도록 하고 싶다.

아빠라는 그 사람과 “그 사람들” - 수염밖에 없던 트럭 아저씨, 자전거로 먹잇감을 노리던 동네 오빠, 여자 애들을 더럽게도 이뻐했던 저질 선생님, 지하철에서 부비부비 하던 늙은이. 그들과 나 사이에 있던 사건에 대해 그들은 절대 글로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의 일에 있어 모든 기억은 그들과 나 둘만 아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는 나에게 그들이 했던 짓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말해야겠다, 남겨야겠다, 죽기 전에.



*‘세상의 빛과 처음 마주한 지도
거의 서른 해를 넘긴 마당에 이런 것쯤은
의연하게 버텨낼 줄 알아야 해.’*

누구에 의한 주입도,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황당함과 공포에 의한 떨림. 그 두 시간의 시작이었다.

2006년 12월 한국에서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될 무렵, 일 년 내내 눈이라고는 구경할 일이 없는 동남아로 떠났다. 현지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파견국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 국내 비정부민간단체의 해외파견간사라는 직함을 달고 캄보디아에서 겪게 될 좌충우돌에 설레어하며 날아간 그 곳.

프놈펜에 도착한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은 다음 날 저녁, 센터장과 마주했다. 간사와 센터장. 20대 후반과 60대 초반. 여자와 남자.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긴장감이 배어있을 법한 관계였다. 그 때는 왜 몰랐을까.

40여 년의 세월을 군 관련 일에 종사했다며 은퇴 후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됐노라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나보다 2개월 먼저 파견되어있던, 내 아빠보다도 서너 살 많은 그 사람에게 낯센과 존경의 눈빛을 보내던 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건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친딸이라고 했다. 잘못 들은 게 결코 아니었다. 그 후로도 마치 전쟁무용담을 늘어놓는 것 마냥 똑같은 얘기를 끄집어내고는 했으니까.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과 실제삽입 외의 모든 것을 다해봤단다. 어느 하드코어포르노의 장면 장면을 눈이 아닌 귀로 전해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멍하니 듣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는 드는 순간 몸에서 멈추지 않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신문 사회면에서나 봄직한 패륜부의 쓰레기 같은 행각이 아닌가.

어떡하지? 얘기를 끊어야 하나? 자리를 어떻게 뜨지?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일순간 스스로를 통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꿈꾸는 일을 하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도 견뎌내야 할 거야. 팔다리를 잃은 태국인 지뢰피해자나 내전 와중에 강간당해 임신한 수단의 어린 아가씨를 만날 때도 그런 표정을 지을 거니? 서른이 코앞이야. 겨우 이 까짓 충격으로 동요하지 마.

한참 신나게 딸과의 관계를 묘사하더니 내게 묻는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있으면 사귄 때 반드시 같이 자보라고, 언제 이곳으로 초대하라고, 그러면 둘이 재미 보게 방 하나를 내준다고. 또 있다. 어젯밤 늦게 도착한 내게 방을 안내해주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후, 내 샤워소리를 들으며 손장난을 했단다. '손장난'에서의 그 손짓이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그 두 시간이 잘못된 시작의 발단이었을까. 점점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방을 놔두고 굳이 자신의 바로 옆방을 쓰라고 종용하더니만, 늦은 밤마다 나를 불러댄다.

“이 간사, 나 이것 좀 봐줘요!”

단체에서 나를 통해 새로 보내준 센터용 노트북에 사적인 파일들을 죄다 옮겨 담겠다고 몇 밤을 비슷한 시각에 부른다.

“선생님, 내일 아침에 도와드릴게요.”

“안돼, 내일 아침엔 시간이 없다고. 나 이거 잠깐만 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자려고 이미 누웠어요.”

“그대로 건너오면 되잖아. 아주 잠깐이면 된단니까.”

파견 전, 한국에서 친구가 구운 CD 몇 장을 선물로 내밀었다고 했다. 재밌는 내용이라고. 그 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 60대 할아버지는 당연히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딸과의 그렇고 그런 짓에 대한 것은 그저 옛날 얘기려니 그랬던 것 같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방금 샤워를 마치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그 방에 들어가는 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아래 1층에서 샤워를 하고 돌아와 한가로이 책이나 들추다 잠들려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채끼더니 내 머리에 코를 묻는다.

“아, 향기 좋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하셔서.....”

매번 같은 내용을 알려준다. 결국 한국에서 갖고 온 CD를 모조리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고

서야 밤마다 불러 다니던 일이 끝났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뚝, 뚝, 뚝!” 1층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 시골처녀에게 식사 때마다 밥을 가리키며 소리를 무섭게 질러댄다. ‘뚝’은 ‘많이’라는 뜻의 캄보디아어다. 쌀에 물을 더 많이 부어야 한다고, 진밥이어야 한다고. 20대 초중반의 아가씨 눈에 공포가 어렸다. 같은 눈빛을 현지인 직원들이라고 내게 소개시켜준 두 명의 남녀대학생에게서도 보았다. 짧은 영어실력으로 같은 단어를 보통 세 번 이상 되풀이하는 게 그 사람의 의사소통방식이다. 물론 당연히 언성이 크고 높다. 내게도 좀처럼 적응할 수 없는 언행인데, 그 친구들은 오죽했을까.

땡벌 아래 그늘을 드리울 만한 고층빌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날마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도서를 구입했다. 그리고, 밤이면 어김없이 온갖 종류의 음담패설을 들어야 했다. ‘수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냐는 등, 외국인 여자가 개나 말이랑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외로운 상황에 놓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는 등, 수개의 성기를 쓰다 들어보며 간이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반응하더라는 등.....

한 건물에서 근무와 숙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 그 사람이 왔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렸다. 나와 같이 간사로 파견 예정이던 동년배 친구. 남자이긴 하나, 한국에서 현지 근무 계획을 함께 짜며 어느 정도 편해진 사이였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도 눈뜨면 마주쳐야 하는 이 육십 먹은 농구렁이 쓰레기와 더 이상 둘만 생활하는 게 점점 참을 수 없이 역겨워져가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아는 한국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좋을지 두렵기만 하고 마땅히 드는 해결책이 없었다. 선불리 나섰다가 저 불같은 성격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더 이상 늦은 밤에 나를 목 놓아 불러대지 않아도 여전히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처음 2주간은 1층 마당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면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 두 개를 들고 방으로 올라오곤 했다. 열대지방의 오래된 목조건물에는 길고 널찍한 나무판자를 세로로 이어붙여 나누어놓은 방이 1, 2층을 통틀어 일곱 개가 있었다. 1층의 방 세 칸은 침대가 들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게 했다.

“우리 이 간사 오면 가장 전망 좋고, 쓰기 편한 방 내주려고 내 다 생각해서 침대도 제일 좋은 거 여기다 설치해놓은 거야.”

도착한 날 밤, 처음 들은 소리다. 그래도 다른 방을 쓰면 안 되겠냐고 몇 날에 걸쳐 재차 완

곡히 청하던 내게 되돌린다.

“내 다 이 간사 생각해서 그랬다니까! 딴 방은 죄다 별 볼일 없어!”

왜 굳이 자신의 방과 이어져있는 방을 내게 준 것인지. 걱정하기만 하면 나무판넬 사이사이로 방의 어느 구석도 살살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였다.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 두 개 중 하나는 베개 옆에 두고, 그 사람의 방과 내 방을 연결하는 문의 고리에 다른 하나를 가로로 끼워놓은 채 밤마다 얇은 잠을 청하곤 했다. 기침소리, 잠꼬대소리, 그 사람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곤 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난 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건드려. 재미가 없잖아.”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들었던 소리였다. 설마 별 일 없겠지? 아니야. 자기 친딸한테도 별 짓 다했다는데, 괜찮을 리가 있어? 그래도 육십이 넘는 노인네잖아. 아니지. 군대생활을 40년 이상 했다는데 쇠잔한 노인은 아니지 않겠어? 한두 시간 탁자에 앉아 있으면 노출된 팔다리에 100방 이상 침을 놓는 열대지방 모기나 밤마다 침대 다리를 긁아대는 큰 지막한 쥐나 2층 베란다를 통해 자기 집처럼 날아다니는 박쥐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저 사람이 나를 덮칠까. 그래도 여자가 응해야지 덮친다잖아. 괜찮을 거야. 밤마다 내 머리를 오갔던 생각들이었다.

어떤 화제로 대화를 시작해도 늘 농도 짙은 성적 담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가족처럼 친밀해져야 여기서 같이 생활하기 편하다고. 항상 의문이었다. 저 '가족'이란 말이 '딸'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캄보디아인 대학생 직원 둘이 퇴근하고 난 후 어스름한 저녁 무렵부터 대화 내용이나 손길이 짙어진다. 대화 중간 중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순식간에 끌어당겨 허벅지를 주무르는 건 예사로운 일이고, “나한테 잘 보이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설마 그런 쪽은 아닐 거야.

점점 만지는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시간으로 밤 9시, 캄보디아에서는 저녁 7시 정각에 시작하는 KBS 뉴스를 시청하고 있노라면 왜 멀쩡이 앉아있냐며 내가 앉은 의자를 자신 곁으로 바짝 끌어당긴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럴 때면 은근슬쩍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팔 안쪽 여린 살을 훑기도 했다. 참 답답했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싫다고? 그만 하시라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는 인간이니 별일도 아닌데 왜 정색하느냐고 그러면 별집을 쫓시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도움을 청할 데도 없

는데 어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손길이 또 거뒀진다. 미치겠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야. 번번이 말할 기회를 놓치잖아. 주책없게 심장이 벌렁대는 통에 들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앉아있는 것도 힘에 부쳤다. 결국 한다는 게 “참, 빨래 할 거 있는데.”라며 눈치보다 자리를 뜨는 정도가 다였다.

명색이 캄보디아문화복지센터 센터장인 사람이다. 빈민국 개발을 위해 한국 민간지원의 미명으로 보다 높은 도덕적 경각심과 책임감,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저런 쓰레기가 있다니. 새삼 그 사람을 여기로 보낸 기관도 신뢰할 수가 없었다. 한국 본부 사무국과 전화통화도 쉽지 않았다. 센터에 핸드폰 한 대만 있으면 된다면 본인 소유의 것 마냥 나한테는 쥐어주지도 않는데다 인근 인터넷카페에서 인터넷폰으로 한국에 전화를 하면 메아리 현상이 심해 서로의 말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메일로 수차례 업무와 관련한 부탁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니 업무 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달리 무슨 보고와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으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도무지 마땅한 대안이라는 건 떠오르지도 않고,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한국에서 곧 나온다면 그 남자간사는 왜 안 오는지. 그 사람만 빨리 와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촌 어느 곳이든 여성과 아동, 빈민층과 같은 소외계층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꿈을 향해 이제 겨우 한 걸음 뻗을 뿐이었다. 무슨 일을 실제로 당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겁먹으면 안 돼. 이런 일로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여기서 배우고 얻어갈 거에 치중해야 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무지함이 빚어낸 참음성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다. ☹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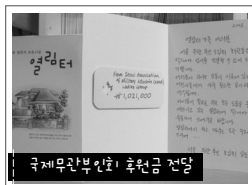
Diary
열린책 다이어리

 $3_{\frac{0}{1} \frac{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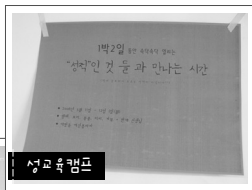
10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배움과 참가
 <불멸의 화가, 반 고흐> 미술관 관람
 영화 <주노>감상 및 좌담
 홀로 할머니 돌보기 활동

 $4\frac{0}{12}$

국제무관부인회 후원금 전달
홀로 할머니 돌보기 활동
미술치료 (4회)

 $5_{\frac{0}{2} \frac{1}{2}}$

〈꿈 찾기〉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성교육캠프 〈1박2일 성적인 것들과 만나는 시간〉
 민우회콘서트 〈공감여행〉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작 관람



다이어리를 정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난 3개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열린터 식구들과 함께
잘 나누고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디쯤 왔는지 한번쯤 숨을 돌리게 되네요.

최근에 있었던 즐거운 기억은
1박2일 전하게 다녀온 성교육 캠프가 떠오릅니다.
하룻밤도 부족했던 이 길고 긴 이야기는
후기로도 전하겠습니다.

요즘 열림터 식구들이 한창 열 올리고 있는
〈꿈찾기〉 시간의 소란스러움은
6월에 있을 꿈 발표회가 지나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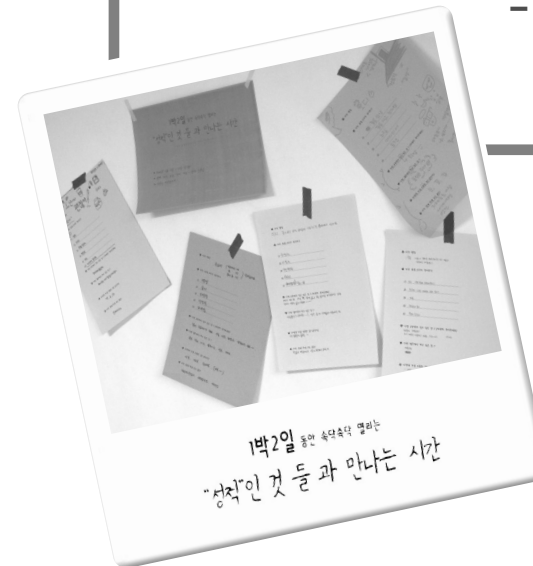
훔날리는 봄이 지나고
 푸른 여름이 성큼 왔습니다.
 계절의 색이 바뀌는 동안의
 열린터 식구들의 사는 모습,
 배우는 모습 함께 하주세요.

1박2일 속닥속닥 열리는 “성적”인 것들과 만나는 시간

- 잠지 프로젝트 수업 -



◎ 성교육 강사 한새



나는 열림터에서 활동하는 거북의 요청에 의해, 열림터 학생들의 성교육 캠프를 5월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하게 되었다.

첫날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너무 반가움을 느꼈다. 웃으면서 반갑게 나를 맞아주는 3명의 여학생들의 첫인상에서 매우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던 육포를 나눠먹으며 1박 2일 일정에

대해 나누었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각자가 애칭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연결 하고 자신을 알리고 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심과 더불어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잠지프로젝트>는 자신의 성기를 직접보고 그리면서 성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긍정심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 문제로, 혹은 아이들의 거부감으로 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앞둔 모를 듯 약간은 비밀스럽게 (곧 드러났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고, 우리 일정을 시작했다.



한새

첫 시간은 <우리서로 알아요!> 자신의 별칭 소개

와 장점 5가지 말하기를 통해 자신만의 특징이나 성향 등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자 오늘 캠프에 와서 배우고 싶은 것과 기대한 바도 공유하면서 캠프 진행자와도 눈높이를 맞추어 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아동과 성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로도 잘 설명 하였다.

두 번째 시간은 다양한 그림 자료를 통해 <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문화를 정리하고 쉽게 보는 작업을 하였다. '자전거, 소파, 화장실, 핸드폰, 다리'라는 주제어를 성과 관련지어 확장하고 연장하는 과정을 통해 웃고 느끼고 공감해 나




 열림터 블로그를 열었어요~
 - 열림터 활동가들의 매화(?)
 - 각자기 자유헌동가이 활기찬 활동
 - 함께 사는 가족들의 일상다반사
 온라인에서도 열림터의 시끌벅적 사는 이
 야기를 보실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오픈패밀리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yeolim.tistory.com

갔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성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자연스레 비밀리 진행했던 잠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방법을 천천히 설명하니 우려와는 달리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면서 부족한 공간과 시간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서로 2명씩 한방에서 서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시작되었다. 나와 거북은 나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학생들이 잘하고 있을까 서로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서 서로의 에피소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괜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불안하고 웬지 꼭 같이 끝내야 할 것처럼 하다가도, 더 자세히 그리고 싶어 거울을 통해 허리와 목의 아픔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 몸에 대해 다가가려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또한 각자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서로 성기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 모양, 명칭, 색깔, 냄새, 느낌, 촉감 등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여 반갑기도 했다. 진짜 알고 보아야 할 곳을 오늘 처음 보았다며 감탄을 나누고, 서로의 감탄을 통해 여성으로써 한걸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전해졌다. 밤이 깊어 갔지만, 피임 체험도 하고 금금함도 오래도록 나누었다.

다음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유혹온도계> 게임을 진행했다. 유혹이 많은 현실을 경험해보기 위해 한명이 온도계가 되면서 섹스에 대한 유혹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말을 통해 서로에게 온도계를 높이기 위해 각자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현실감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가부장제 말을 통해 설득할 수 밖을 현실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존중파티를 하면서 케이크를 통해 촛불을 하나씩 붙면서 자신이 올해 하고 싶은 욕망, 소원을 말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로 남고 싶은 깊은 갈망을 하면서 서로에게 칭찬바구니를 통해 글로써 자신의 말을 남기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는 시간을 느끼면서 파이팅을 외치며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지게 되었다. ☀

우리들의 소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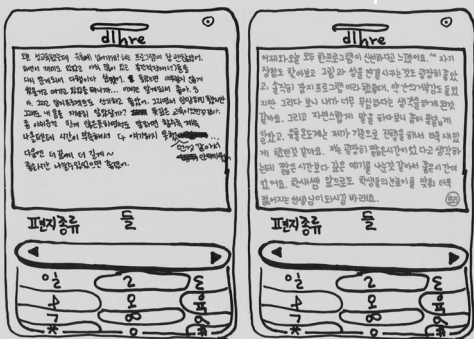
어제, 오늘 교육 정말 인상적이고 신선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솔직한 시간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까 훨씬 재밌고, 잘 외닿았던 것 같아요. 잠지프로젝트도 너무 신선했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한게 알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상상 이외의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신의 성을, 특히 성기를 좀 더 자신만의 특별하고 괜찮은 이상한 게 아닌 것으로 보는 첫 단추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잠지 프로젝트 신선하고 좋았어. 그러면서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몸을 자세히 알았달까. 뜻 깊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 좀 아쉬운 건 한계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말하면 할 수록 많이 나옴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장점도 찾고, 그림과 성을 연결지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구. 솔직히 잠지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거부감도 들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1박2일 돌아보니, 웃음도 나고 의미도 새로록 합니다.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지식들이나 잘못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보고,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Your body is a battlefield? Your body is a buyer's market!¹⁾

☉ 나눔터 편집팀 아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 '세계를 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생체정치학(Women's Bodies in the Age of Bio-tech: Agents for Reproducing the World and the Object of the Bio-Politics in Globalization)' 이 지난 4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지만 특히나 캐서린 월비(Catherine Waldby, 시드니대학) 교수의 기조발표였던 '생체정치학과 재생산(Biopolitics and Reproduction)' 이 흥미로웠다.

'생체정치'라는 용어는 1970년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제창한 것으로 인간의 삶과 신체의 생산성이 권력관계로 동원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의료서비스와 의학기술이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자원 공급처로 삼으면서 이 생체정치는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캐서린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대해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 생물학에 대한 견인력을 상실했다'며, 생체의학 연구자들과 세계화된 상업자본이 여성의 재생산 생물학에 주의를 쏟기 시작하면서 재생산 과정은 투기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영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은, 처음에는 IVF(In Vitro Fertilization; 체외수정)와 같이 주로 불임문제에 관한 것이었으나, 줄기세포 기술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재생산 생

1) buyer's market 구매자 주도 시장 : 시장의 상품(노동도 포함)이 과잉상태거나 값이 하락하고 있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구매자가 자기 뜻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이나 수량에 관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여지가 커진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몸 이야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한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 세상에 대한 인식의** 세계의 생산하고 재생산하는가에 관한 이슈들을 다룬 **진정한 자리가 될 것이다.** **조,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연루되는가 뿐만** **어떻게 몸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곳**

일시 | 4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물학이 갖는 능력을 '재생산'에서 '재생의학'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여성의 난모세포와 시험관 배아는 다른 인간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신체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배아줄기 세포의 연구를 위해 실험실에서 조작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구하기 어려운 다량의 생식조직의 소유와 통제를 요구하기에 생체경제학의 발전에 있어 여성들의 동의, 관용, 대행 산업 등은 중요한 이슈이다. 점차 세계화되고 확대되는 재생의학 연구는 더 많은 양의 난포세포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이를 구소련,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지의 여성들에 의해 별 규제 없이 싼값으로 제공되는 전지구적 난포세포 시장에 의지하게 되었다.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크레타, 말레이시아, 그리고 최근 한국에 이르기까지 생식조직의 매매를 허가하는 국가들에서 다국적 사설 임신클리닉이 세워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된 난포세포들은 규제가 더 엄격한 나라들의 고객들에게 판매된다.

생식세포 기증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의 부유한 구매자들은 '가깝고 통제가 심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수입이 적은 가난한 젊은 여성들로부터 난포세포를 구매한다. 난포세포 기증자를 찾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일본인 부부들을 위해서, 한국의 클리닉은 빛에 시달리고 있거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 중에서 난포세포 기증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황우석 교수가 연구용 난포세포를 얻고자 DNA뱅크를 이용했고 브로커들이 처음부터 실험실에 난모세포를 제공해 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재생산'을 위해 난모세포를 기증한 인구와 그들을 모집한 네트워크가 '연구용'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망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서 캐서린은 '연구용' 난모세포 모집에는 교육수준이나 외모의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난모세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옆에 하이테크놀로지 지구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비단 국가들 간의 경제력에 따라 난자가 매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의 '가난한 여성들'이 국가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을 위한 잠재적인 제공자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조발제

사회 3
발표 9

패널 I

사회 6
발표 4
토론 2
발표 2
토론 2

패널 II

사회 6
발표 4
토론 2
발표 2
토론 2

국제 학술회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Women's Bodies in the Age of

여성의 몸과 재생산하는
생체 경제

여기서 제기되는 논제는, 글로벌 생체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가 되어버린 여성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의 '재생산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캐서린은 난모세포 증여 과정이 약물 복용, 실험, 진료예약, 자가 모니터링 등의 복잡한 의학 적 절차에 순응해야 하는 까다로운 노동이 될 수 있다며, 판매자들이 대표기구 조직 등을 통해 보상, 사후 관리 및 보험 등에 대한 협상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모 세포 시장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이들을 밀매와 암시장의 더 큰 위협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난모세포 제공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캐서린의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마땅히 seller's market(판매자 주도 시장)이 되어야 할 난모세포 시장이 국가 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착취를 도모하는 다국적 시설과, 정보 격차를 이용하여 '재생산'과 '재생의학' 사이를 함부로 넘나드는 비양심적 연구자들에 의해 buyer's market(구매자 주도 시장)이 된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재생산은 사회구성원인 여성에게 부가적인 보상을 받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생의학의 발달에 난모세포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대로 하자면 재생의학의 필요성과 난모세포 제공자의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시설은 양심적이며 적절한 보상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모세포의 기증이라는 어렵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다국적 시설의 횡포가 이어진다면, '밀지고 팔리는 것'의 범주 속에서 고통 받아온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그 구조에 고착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

Your body is a battlefield?
Your body is a buyer's market!

몸 이야기 _ Your body is a buyer's market




만나고 싶었습니다


◎ interviewee_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 interviewer_ 나눔터 편집팀 아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 알고 계시지요? 수요시위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번 호를 통해 만나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입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1990년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사실 인정, 공식사죄, 진상규명, 피해자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역사교과서 기록 등 7대 요구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전쟁시 여성인권의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무력갈등 하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국제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대협에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War & Women's Rights Museum'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세워지면 전쟁 중에 일어났던 여성폭력을 만천하에 고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가슴 깊이 경계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영감을 줄 거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단체의 반대로 건립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은 착잡한 마음을 안고 5월 9일, 정대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na
nuter
edutainment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War & Women's Rights Museum'을 건립하신다고 들어요. 그런데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전쟁과 인권 문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된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 왔어요. 2005년에는 서울시가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박물관 부지를 기증하여서 지난 3월 8일에 기공식을 하려 했는데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심하게 반대하자 '독립유공단체를 설득해 오면 건축허가 하겠다'며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힘있는 사람이 이기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독립유공자 단체에서는 왜 반대를 하고 있나요?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서대문 독립공원은 성지와 마찬가지로 어디 부끄러운 역사를 끌어들이느냐 하는 식이지요. 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 할머니들이 과거 경험을 말하기 시


작했는데 '다시 숨기라는 이야기인가' 싫어요. 단순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업 인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무시와 잘못된 역사인식의 발로겠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다면 박물관이 지어져도 겉돌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드러나서 부딪혀볼 수 있게 된 게 다행일 수도 있지요.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들과도 힘들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한국여성연합과 이화민주동우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과 함께 건립 촉구 요구서를 보내는 활동을 지난 2주 간 펼쳤고,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여성정책과와 도시공원과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도시공원과에서 면담 전에 만나자고 해서 어제 만났는데, '우리 과에서도 독립유공자 단체들의 요구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적으로는 허락이 났으니 건립비의 50%를 확보하면 착공 허락을 내겠다'면서 '다음 주에 그렇게 보고할 테니,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때 면담을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시장 면담 요청을 하고 크게 목소리를 내야만 돌아봐 주는데 싶어 안타까웠어요.

예상대로 진행됐다면 3.8 여성의날에 착공 하면서 성대하게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어요. 베트남 호치민시 전쟁박물관의 특별전시 +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전시 + 독일 라벤스부르크(독일의 여성정치범 수용소였으나 지금은 나치 하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박물관이 되었다)의 강제매춘 관련 전시 + 아프리카 소녀병 문제를 다루는 전시 + 아시아 빈곤 여성이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현실에 대한 전시 등을 기획했었는데...


 정말 아쉬워요. 내년에는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립비는 잘 모아지고 있나요?


 건립비의 50%인 15억원을 내년 3월 8일까지 모아야 해요. 현재 현물기부와 현금기부를 합쳐서 9억 정도 모였기에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6억의 성금을 더 모아야 하지요. 안타까운 현실은 기업들이 일본과의 무역관계, 기업이미지를 운운하며 후원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곡된 시각과, 당당하지 못한 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이제부터 열심히 모금을 해야겠지요.


 기업들이 나서서 후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모금을 위해 나비 모양의 휴대폰고리를 팔고 계시는데 저도 사겠습니다. (이 휴대폰고리는 고난과 고귀함, 우아함을 의미하는 보라색갈 나비 모양이다. 휴대폰화면 클리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악세서리로 한 개에 3,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면 된다.)

 이 사안이 인종, 민족, 계급, 성차별(젠더)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정대협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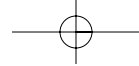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윤정옥 선생님이 "나는 끌려가지 않았다. 미리 알고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자퇴한 후 몸을 피했다. 그 죄책감이 컸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끌려가고도 돌아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신문 한 쪽 끝에도 없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하기 시작해서 이게 운동으로 발전한 게 정대협이거든요.

 요새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과 역사관이 많이 이슈가 되던데요, 정대협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했어요.(4월 29일 7개 종단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며). 이 얘기를 듣고 할머니들이 매우 분노했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관이... 인권이나 국민의 권리, 환경이라는 가치를 경제, 이익을 위해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은 그런 게 아닌데 실용, 이익을 주창하고,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실용이고 이익인지 물어야죠. 결국 소수의 잘 사는 이들과 기업들을 위한 이익인가. '용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권철현 주일대사는 "무역 적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중요한 시간인데, 과거를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 국익에 맞는 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 적자와 국익을 위해 이 문제는 덮으라는 건지... 이상한 외교논리지요. 할머니들이 "이거는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지금까지 살아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억울하다"고 그러세요.

 정말 알팍한 경제 제일주의적 소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으로서 분노를 당당하게 표출하고,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지적하는 움직임들을 보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_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번 광주병 파동 관련해서 ‘아이들이 선동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청취자 통화연결 시간에 목포의 한 여고생이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런 통로가 없어서 촛불시위에 나갔다. 우리에게도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들이 있고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역시 희망은 있다,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 힘입어서 우리도 열심히 투쟁해야겠지요. **(정대협 의 국제연대 활동, 멋져요!^^)**

홈페이지를 보고 알았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일본의 인권을 심의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요. 여기 정대협 활동가 분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저희 조시현 전문위원과 안선미 간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 있습니다. ^^ 5월 5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써 각국의



어떤 할머니는 친구와 사진을 찾아 돌아오다가 함께 위안부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내내 품 속에 간직하여서 해방때까지 지켰다고 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 사진을 정대협에 기증하셨습니다.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절차로 실질적 개선과 이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 실무그룹 2차 세션에서 일본,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어요. 바로 지금 시각(5월 9일 오후)에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1월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의를 요청하는 NGO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이번에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 같아서 이후 일본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의 국제연대활동은 참 부러울 만큼 활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와 활동 기반을 구축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전쟁, 여성인권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이고 많은 전시, 갈등, 분쟁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국제연대의 촉매제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선배들이 전략을 잘 세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대협이 90년대에 발족해서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정부가 말을 듣지를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피해자가 나오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되었어요. 자료는 가해자인 일본이 많이 갖고 있는데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는 않고, 경제적인 우위 등 국력을 믿고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도 얘기를 잘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피해 내용을 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해 보자, 해서 1992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필리핀의 ‘가브리엘라’라는 곳에도 보냈는데, 여기서 아시아여성인권센터에 저희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때부터 필리핀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태국의 경우는 일본이 철도를 놓으면서 거기서 종사하는 태국 남성을 위한 ‘위안부’를 조직했었고, 대만과 일본에도 여성들의 피해가 있었어요. 이렇게 92년에 연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하다가 UN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정대협 회의실

UN과는 어떻게 연결되셨나요?


그 때는 이효재 선생님이 무조건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로 갔어요. 거기서 인권 문제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일단 간 김에 재미교포들과 함께 가두행진도 하고, 증언집회도 크게 가졌어요. 거기서 돌아오고 나서 바로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한글주할머니와 같이 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때만 해도 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95년에 보스니아/세르비아 사건이 터지면서 세계 여성들의 관심이 커졌지요. 계속되는 전쟁 중 여성 강간, 정부와 군부에 의한 제도적 범죄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게 되었고, 동시에 여성폭력문제특별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니 OK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그 특별관의 임무로 부여해 달라고 UN에도 로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95년도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96년에는 드디어 채택이 되었지요. 그 결과로 UN위원회의 전시성적노예제에 관한 보고관이 2000년에 국제법정을 열게 되었어요. 그 사이 사이에도 계속 전략을 발굴하고 있어요. 일본 국회의 관련 입법은 요원해 보이기에 일단 미국에서 위안부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요. 올해에는 일본에서 8차 아시아연대회의가 열려요. 그 때도 가려고요.

미국, 유럽 등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비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일본은 오히려 그 특유의 우익들의 반동적 움직임이 그칠 줄 모르는 것 같고, 한국 정부 역시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사실상 방조하고 협력했던 역사 때문에 저러는가 싶기도 해요.

일본 우익은... 일본의 여성 활동가들도 대책 없어 하더라고요. 일본의 우익 정당인 자민당 의원이라도 자신들의 의견과 틀어지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일본 우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본 활동가는 명함에 주소를 넣지 않더라고요. 2002년만 해도 우리가 일본 방문할 일이 있으면 “나리타 공항에 오는 순간 목숨이 위협한 줄 알아라”는 팩스가 오곤 했어요. 가부장제와 천왕제가 모든 교육, 정치시스템에 주입되고, 상부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참 무섭지요. 한국정부의 경우 해방 후 역사 전개를 살펴보면 일제식민지 하에서 다른 국민들 선동하며 관직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그대로 이승만 정부의 인력이 되었어요. 6.25 때는 국가에서도 방석부대 운용을 했었고, 일본이 사용하던 위안소를 미국이 그대로 또 사용하고..... 이런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재생, 반복, 답습, 승계되다 보니까 국가의 우선 정책 선정에서 앞선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은 각종 진상규명위원회들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실정이지요. 이 건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해요. 그나마 성폭력, 가정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대협의 운동은 사람들이 특수한 것, 그만큼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께서 이젠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대협에게 이 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실 때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 혹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궁금해요.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소하고 싶죠. 90년대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5년 정도 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면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졌지요. 일본 천황제가 바뀔 리는 없을 거고, 패권주의 자본이 휘두르는 권력 질서에 어떻게 금 가게 할까 하는 고민 많이 했어요. 앞이 안 보여서 정대협을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행부의 현실적 고민도 크고, 운동하다가 지치는 문제도 있었지만 할머니들 살아계신데 운동을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고마운 거는요, 할머니들이 아세요. “사죄, 배상, 내 생애는 힘들거라는 거 알아. 그러나 후세들은 이런 일 겪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인권운동가들이 되신 거지요. “배상 받아도 그 돈을 쓰고 죽겠냐. 젊은 날의 꿈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내 명에는 회복하고 가야지”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 변화와 에너지가 또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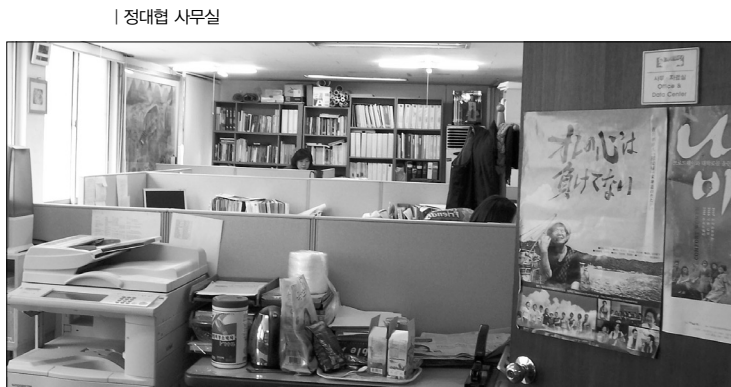
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눈 감으시기 전에 “증언 하고, 신고하기를 잘 했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할머니들 눈 감으시면, 편히 못 가신 걸 알기에 해원 곳 해드려요. 돌아가시고 나도 사죄, 배상 운동 계속할 수 밖이에요.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 교육, 일본 내 박물관 건립 문제, 현지 성폭력 지원 문제 이런 것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박물관 건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박물관(active museum)을 꿈꾸고 있어요. 전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버스박물관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보고 싶어요.

와~ 멋져요! 꼭 이루시기 바라요! |

얼마 전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현재진행형’ 성노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알바니아계 인신매매조직이 파리를 여행 중인 여성들을 납치하여 프랑스의 소외노동층인 알바니아 노동자들을 위한 ‘위안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마약을 주입받고 그곳에 갇힌 여성들,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여성들의 모습과, 그 와중에도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가르는 영화의 폭력적인 시선 앞에는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심각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할머니들에게 격려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UN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할머니들이 무명천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했고, 지나가는 회사원들의 반응도 그렇게나 시큰둥했다고 해요. 언론의, 시민들의 반응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할머니들도 달라졌고, 수요시위는 그렇게 서로 즐거운 상호작용이 오가는 자리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시에도 수요시위는 여전히 열릴 겁니다. 17여 년 간의 눈물겨운 투쟁이 여전히 새살을 돋우며 빛을 내고 있는 수요시위에 함께해 보세요!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womenandwar.net>



| 정대협 사무실

인 간 을 , 그 리 고 자 유 를 향 하 다 발 도 르 프 교 육

Waldorf

◎ Q 나눔터 편집팀 / ◎ A 발도르프 세아

지난 나눔터 58호 [이런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렸던 발도르프 목공수업, 혹시 기억하시나요? 발도르프교육은 목공 수업을 비롯해서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도르프교육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왜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발도르프교육학(Waldorfpädagogik)은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에 의하여 시작되어 가장 성공적인 대안교육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800여 개 이상의 발도르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화된 지식 교육으로 적절한 산업일꾼을 길러내는 게 지금 우리네 교육이라면, 발도르프교육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과정에 고루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교육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마련해 준 교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나눔터와 함께 알아보아요!



Q 발도르프의 교육이념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면 ‘인지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A 사람이 무엇이고,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는 게 인지학인 것 같아요. 또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삶 속에서 평생을 걸쳐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지요. ‘인지학’이라는 것을 몰라도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경험하고, 배우고, 깨우치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는 학문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발도르프 교육이념과 인지학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부분은 발도르프교육에서도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지학과 발도르프교육을 완전히 따로 두기도 해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의학,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실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도르프교육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도르프교육관 속의 인간관은 밝은누리 출판사에서 나온 ‘발도르프학교와 그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 인간을, 그리고 자유를 향한다 <발도르프 교육>



이런 프로그램

Q 발도르프의 교육과정을 보면 '예술이 곧 교육 그 자체' 라고 할 만큼 예술 교육이 중시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슈타이너가 교육은 '교육예술' 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술교육과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예술과목이 예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거의 없는 과목이나 마찬가지로인 한국교육과 비교하면,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예술과목이 수학, 영어와 비중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시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한국의 공교육은 지성이 최고라고 여기는 지성교육중심입니다. 지성을 편파적으로 발달시키고, 감정과 의지를 함께 발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물질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모든 단계의 수업을 진행할 때 외적인 지식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의지형성, 감성형성, 오성형성과 관련하여 인류발달의 과정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Q 발도르프 교육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점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굳이 '발도르프교육을 배운 사람으로서'가 아니어도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밟고 성장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나라의 공교육은 전인교육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겠죠.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알아가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 또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적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1순위 교육목표는 시험 잘 보는 학생 만들기, 나아가 SKY 대학생 만들기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은 일단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가 정해놓은 교육시스템을 다 밟고 나서야 가능한 것 같아요.

Q 독일 발도르프학교의 교실 모습은 어떤가요? 한국처럼 '우리 반 교실'이 따로 있나요?

A 1학년에서 8학년까지 담임교사가 있는 학급제이고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학년마다 교실의 위치도, 분위기도 다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발도르프학교 교실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교실이 그렇다면 창문도 마찬가지로.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와는 많이 달라요. ^^;; 제가 독일의 발도르프학교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아름답다,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머물고 싶은 기분이었구요. 한국에서는 '1-1'과 같은 학급문패를 보아야 반이 구분되고, 내가 어디쯤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복도식 건물+운동장'이 대부분이잖아요. 발도르프학교의 건물과 교실은 '천편일률'과는 거리가 멀어요.

Q 한국에도 발도르프학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발도르프학교는 어떤가요?

A 한국에는 아직 정식 발도르프학교가 없습니다. 다만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는 대안초등학교가 세군데 있어요. 과천자유학교, 하남푸른숲학교, 광명구름산초등학교가 그래요. 차츰차츰 학교가 발전해 가고 있으니, 한 10년 후 쯤에는 한국에도 제대로 갖춰진 발도르프학교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Q 발도르프교육을 공부하신 세아선생님은 요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A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사라는 직업은 절대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질이 교육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민들레 사랑방에서 13세에서 18세 사이의 15명의 홈스쿨러들과 매주 목요일에 목공수업을, 양평 전교조 선생님들과는 함께 목공수업을, 또 알토 나무 리코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주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또 과천자유학교에서 독일어로 된 발도르프교육 관련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에요.

Q 관심있는 사람들이 발도르프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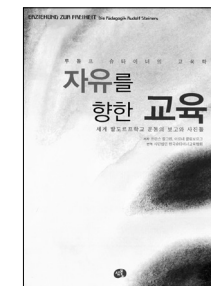
A 일단 발도르프교육과 관련된 교육서적을 읽어보시고, 한국슈타이너교육협회 등 발도르프교육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발도르프교사교육을 국내나 국외(독일,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발도르프교육은 유아교육, 학교교육, 특수교육으로 나뉘구요, 학교교육에서는 다시 담임교사과정, 전문과목교사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과목교사과정은 중고등학교에

서 배우는 과목들과 예술·체육·수공예 등 전문과목의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3년이 걸리구요, 외국에서는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나 현직교사인 경우 1~2년, 아닌 경우에는 4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학과 발도르프교육에서 특히 빛나는 부분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도르프교육을 인간의 자유를 위한, 자유를 향한 교육이라고 말하거든요. 슈타이너가 발도르프학교가 생기기 전에 학교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도르프학교는 인간의 사고, 최상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사고도 거역합니다. 저항하고 거역해야만 합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미래 발달의 진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진로에서 바로 이 정신적, 교육적 분야에 과업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 이 '저항하고 거역해야만 합니다'라는 말에 다시 한 번 꽃혔습니다. 순응해서 머무르기보다 저항하고 거역해서 발전하기! ☺

인지학 및 발도르프 교육 관련 참고서적

■ 인지학관련서적

- | 자유의 철학(밝은누리)
- | 고차세계의 인식으로 가는길(밝은누리)
- | 신지학(물병자리)
- | 12감각(섬돌)



■ 발도르프교육관련서적

- | 자유를 향한 교육(섬돌)
- | 발도르프 학교와 그 정신(밝은누리)
- | 아이들그림(섬돌)
- | 수학이야기(섬돌)

소모임 생각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2008년 나눔터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소모임 '토닥'에서 고정칼럼을 연재합니다. 그 두번째 이야기, 들어보시죠!

토닥
세미나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를 읽고

◎ 토닥 소모임원 가운

성매매, 우리의 분열된 시선

성매매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엔 폭 20m, 깊이 100m쯤의 소용돌이가 몰아쳐.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해서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위로해 주는 일이 하고 싶었다는 당신의 욕망에도 나는 어지러웠어. 여성의 성/성기를 이용한 노동에 따라붙는 낙인을 그렇게 전복해버린 것이 놀랍기도 하면서, 나는 당신의 그 '과거의 욕망'이 한편 참 공허하게 느껴졌어.

그 공허함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나 역시 삶에 대한 의지가 쓰다버린 검은 봉지처럼 굴러다닐 때, 성매매 시장에서 내가 과연 상품성이나 있을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거든. (나의 이런 생각이 "성매매=막장인생"이라는 편견과 연결되는 거라고 당신이 이야기했어) 그때 나의 친구의 친구가 성매매 노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것이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것임을 느끼고 흥집 놀랐었어. 내가 굶고 있었던 담벼락 같은 경계가 흐물흐물해지는 순간이었지.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미지-진한 화장과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 풍성한 퍼머 머리-그 그림과 나 사이의 간극에 까마득했어. 나는 이렇게 생겨서야 어디 되겠냐 싶었지. 그러나 반(反)성매매 활동가의 강연 중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나네. 쇼윈도에 앉아있는 언니들 말고 뒷방에 있는 여성들은 정말 못생기고 뚱뚱하고, 거의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관계나 판단이 힘들다고. 나는 어찌되었던 뒷방에 갇힌 그녀이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그래도 너는 (성매매) 안했을 거 같아"라고 했을 때, 나 사실 안도감이 들었어. 흔들렸던 나를 붙들어 준거 같기도 하고, 성매매에 대한 나의 허위의식을 찢으며, 정신 차리라고, 네가 가진 낙인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래, 당신은 어느 반(反)성매매 활동가가 성매매 여성들과 활동가 사이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간극은 성매매를 하느냐, 안하느냐 라는 점선 같은 경계선의 이쪽과 저쪽일 뿐이라고 말한 걸 전해주었지. 경계는 높아졌다가 낮아지고를 반복하는 것 같아.

성매매와 국가 - 정책의 출발점은 국가가 아닌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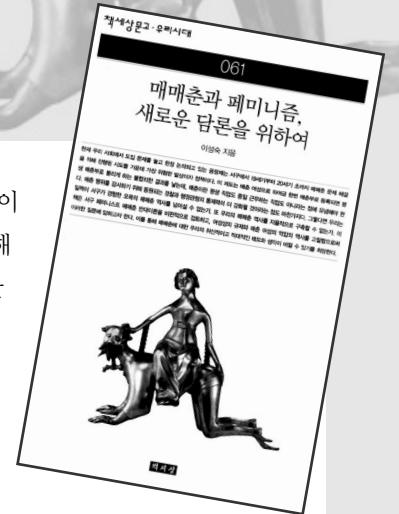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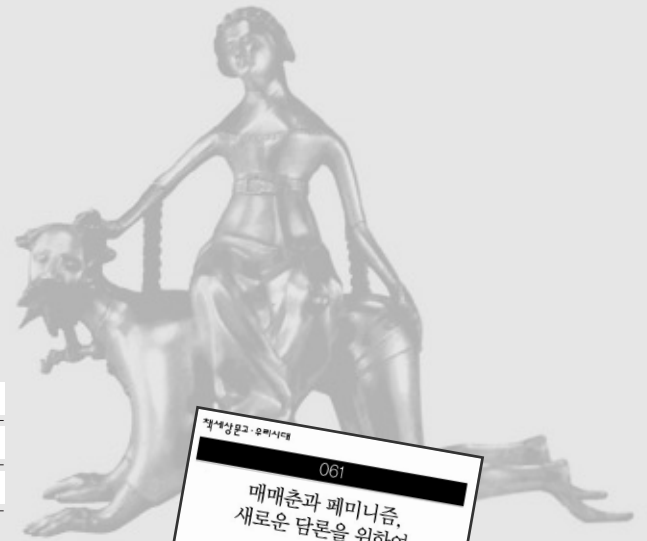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될 당시 그 정책을 추진하던 김강자 총경의 이야기는 국가의 성매매 개입에

● 일시 : 2008년 5월 12일 월요일
● 자료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책세상, 2002년

대한 방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 김강자 총장이 학교 강당 같은 곳에 성매매 여성 1000여명을 모아놓고, 탈성매매 정책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 정책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가라고 했더니 5명만 남았다고 해. 당시 정부에서 내세운 탈성매매 프로그램이 정작 그 정책의 대상들에게는 해볼만하다는 여지를 주지 못한 것이지. 그것은 지금도 그러해. 지금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탈성매매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대상이 없어서 손에 꼽는 수의 여성들만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과 인력은 겹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한 정책은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임대아파트 같은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고, 그 여성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지금처럼 단기간 소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 기간 안에 '좋은 노동'을 배워 탈성매매하라 는 식으로는 정책 대상자들의 외면만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지. 정책의 출발점이 바뀌어야 해.

그래도 "Stop! 성매매!" ?!

여성단체들은 당시 정부의 성매매법이 공창제와 유사한 형태로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아닌지 비판했었어. 그렇다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자 이성숙씨의 주장처럼 '건전한 성매매 시장, 바람직한 성매매 시장'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형태의 성매매 시장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일까? 현재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보면 쉬운 답이 불가능하지. 그것은 크고 넓으며, 낙인과 도덕적 선입견이 강고하게 깔려있고, 착취 구조도 뿌리 깊어. 엄청난 점조직과 사업자들이 얹혀있지. 이것은 지금까지 국가와 시장이 암묵적으로 또는 대놓고 협력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구호는 여전히 'stop! 성매매!' 일까? 지금 나의 고민수준에서는 여기에 좀 더 기울어지는 거 같아. 성매매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구조를 보는 것,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여성주의자' -우리가 가진 이 복잡한 시선들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지 않는 것, 이런 의문들이 만드는 소용돌이를 바라보고 어지러움에서는 얼마간 거리두기. 당신들과 함께여서 마음껏 휘청대었던 시간이었어. 고마워. 안녕. ☯





똥다! 상담소

아동성폭력 대응 활동

우리 상담소는 다른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근본적인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5월 15일에 열고 아동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색의 졸속적인 입법을 비판하고 국회와 정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입법/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나 이 법안은 결국 23일 17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크게 알려진 대구 지역 초등학교 내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대책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21에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구 학교폭력·성폭력사건의 해결추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5/15 근본적인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보여주기식 법안통과가 아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 기자회견실

5/19 서울지역 대책회의 @ 한국여성연합

5/21 대구 학교폭력·성폭력사건의 해결추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동화면세점 앞

비전워크숍

비전워크숍 후기는 p58의 사업리뷰를 확인하세요!

3/25 4차사: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강사: 최정은 W-ing 소장) @ 여성플라자 열린마당
4/10~12 5차사: 조직의 미션관리, 전략적체계도 수립(BSC) @ 강원도 만해마을
4/22 6차사: NGO와 Fundraising(강사: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5/6 7차사: 창의적 기획(강사: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실장) @ 종이책 희망터
5/20 8차사: 시민운동의 미디어 활용(강사: 고준성 다음 미디어본부 미디어뉴스 실장) @ 여성플라자 열린마당
5/27 9차사: 시민사회운동의 노하우 : 어떻게 길을 만드는가(강사: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희망제작소

작은말하기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작은말하기'가 2008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합정역 근처 카페 '사이에'에서 열립니다. 5월에는 '기획 작은말하기'까지 열려서 벌써 총 네 번의 작은말하기를 진행했네요. 11월까지 주옥 이어지고, 12월에는 파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활동가 자주가 쓴 후기가 올라가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3/26 작은말하기 시작 @ cafe 사이에
4/30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에
5/14 기획 작은말하기 @ 무대륙
5/28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에

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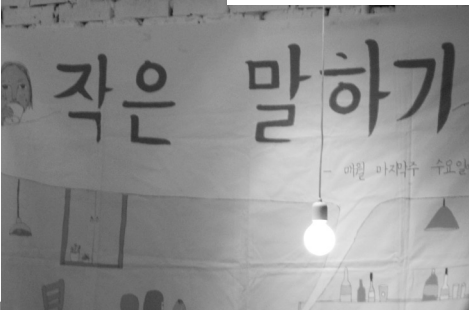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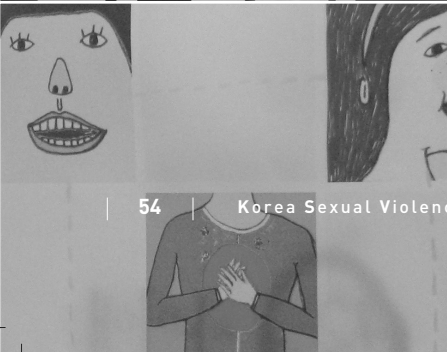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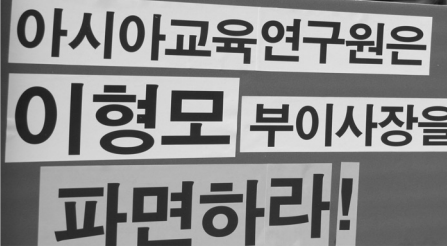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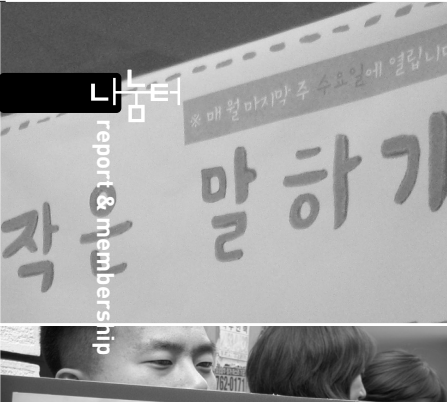
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한국여성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등 6개단체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이 상담통계의 중앙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에는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정보화 반대 싸움을 했던 전교조와 진보넷의 활동가들 만나 반대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기도 하였고, 지속적인 대응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8 서울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5/16 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 회의 @ 여성장애인연대
5/30 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 회의 @ 경찰청

대운하반대 연대행사

많은 국민들이 소리 높여 반대했는데도 소고기 협상은 강행되었습니다. 역시 큰 반대를 받고 있는 대운하 계획도 물밑에서 많은 국책연구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담소는 현재 '윤하백지화국민행동'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3/22 2008년 물의 날 기념 거북이 가족 걷기 행사(윤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4/24 한반도운하 백지화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 동참 (현재 진행 중)
5/24 생명과 평화의 강 모신 대항진 (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 @ 보신각~잠수교 복단



3.25 이사회

3월 25일 서초동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년 간 우리 상담소와 함께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백수 이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우리 상담소 초대 소장으로서 활동하셨던 최영애 이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그간의 회포를 푸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1~6.30 '낙태'에 대한 기획상담 시작

최근 낙태의 합법적 범위를 정하는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여성의 선택권(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pro-life)을 대립시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하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낙태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할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영받는 임신과 당연히 낙태를 해야 할 임신이 이미 존재해있는 사회에서, 마치 여성이 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번 기획상담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비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이 비난받는 것에 대한 분노, 태아의 생명권이나 모성이라는 단어 안에 나의 몸의 가치가 축소되는 억울함, 내 몸의 일부였던 태아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슬픔, 이와 더불어 답 없는 무수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주고 받을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1 낙태권-재생산권을 위한 여성주의자 집담회

1990년대 이후부터 낙태와 관련하여 생명권과 선택권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논의, 낙태결정 '선택권'일 수 있는 환경이 한국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총체적인 정의와 패러다임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담론과 인식, 현실의 여건에 개입하며 현실에서 낙태를 둘러싼 여성주의자들의 대중운동 을 펼친다면 어떤 모습일 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걸음 없이 나누어보았습니다.

4.2 제 807차 수요시위 주관

4월 2일, 제807차 수요시위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관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비워처럼' 노래를 부르며 시작한 이날 행사는 한국성신대대책협의회 사무처장 강주혜 님의 경과보고, 피자매연대 조악금 님의 노래, 한국 아나바티스트와 호주 선교사분들의 연대의 메시지 전달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에서 찾아온 학생들, 거룩한열정의딸수녀회, 황해도국보존전수회, 국단 나비,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의 의지를 담아 성명서를 낭독한 후 807차 수요시위의 막을 내렸습니다.

4.3 이화여성학포럼에서 '반성폭력운동과 리더십' 발표

지난 4월 3일에 이화여대 여성학과,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센터에서 공동주최하는 <이화여성학포럼>에서 우리 상담소가 "여성학-여성운동: 한국성폭력상담소, 길을 찾다-반성폭력운동의 쟁점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주의 공동체에서 시작한 우리 상담소의 17년간 활동을 돌아보며 여성학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성과를 짚어보고,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8 임시총회 개최

우리 상담소에서는 2008년 4월 8일 상담소 모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정관개정을 위해서 개최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재정 공개 등 반드시 명시될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동의와 재정으로 개정안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13 한국성폭력상담소 17주년 생일

이 날은 우리 상담소가 1991년 4월 개소한 이래로 만 17년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루떡을 맞추어 주변 여성단체들을 돌려 떡을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내일을 위한 응원을 들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4.18 형법 241조(간통죄) 위헌제정에 대한 '간통죄 폐지 입장' 의견서 제출

우리 상담소는 한국여성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간통죄 폐지 입장'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폐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와 함께 간통죄 존폐를 넘어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 자기인생결정권, 바람직한 가족관계 및 성가치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전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반성폭력운동>쟁점 및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3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에 대한 토론회' 이윤상 부소장 발표

4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UPR 실무그룹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를 앞두고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한 정부, NGO 단체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인권여부 이행에 대한 점검과 토론회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정부 측이 급작스럽게 불참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를 포함한 37개 NGO단체는 지난 1월 25일 UPR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윤상 부소장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우리나라 여성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3일 토론회를 마친 후에는 5월 7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정부 검토에 참가할 NGO대표단의 활동 준비회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4.23 반차별 상상 더하기: 반차별, 장애인권을 만나다

반차별공동행동은 4월,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아 <반차별 상상 더하기> 반차별, 장애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추가권과 장애인 연금 같은 장애인권운동의 요구를, 장애인 시설의 인권 여성 장애인운동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각 운동 단체들의 교차하는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HIV 감염인 인권운동 단체에서는 에이즈 치료비의 정부 지원을 위해 에이즈가 '장애' 등급 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장애인운동의 입장과 의견을 묻기도 했고,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여성 운동의 이슈가 '장애 인권' 과 교차할 때 어떤 새로운 질문과 고민이 생겨나는데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5.7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첫 번째, 여성 / 장애 / 성 / 폭력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그 첫 시간은 장애여성공감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만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p57의 사업리뷰를 확인하세요!

5.14~6.7 심화교육

성폭력상담 활동가를 대상으로 상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심화시키고 타 단체 활동가와 네트워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심화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p56의 사업리뷰를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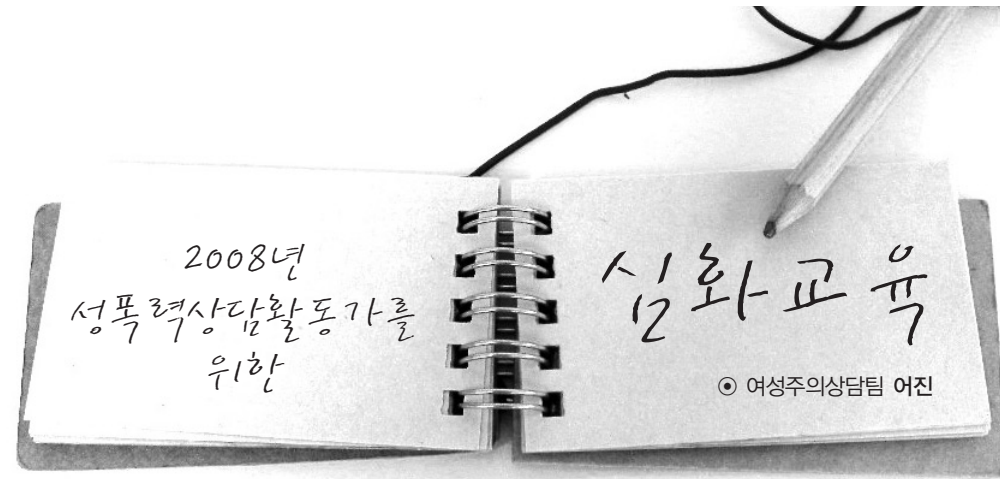
5.10 KBS

5월 10일 오전 11시, 우리 상담소가 KBS 음부즈만 프로그램인 <TV비평 KBS 시청자데스크>의 "Go! Go! 시청자속으로" 단체탐방 코너에 소개되었습니다. 녹화는 4월 30일에 있었는데도 그간 TV를 통해 만나기는 매우 어려웠던 활동가들의 얼굴이 대거 소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전하고 싶었던 비판과 제언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5.28 마포 FM라디오 '팔팔라 아줌마' 특집방송 출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월 28일 <마포FM>과 함께하여 2008 여성희망 캠페인 '팔팔라 아줌마' 특집방송 말들에게 희망을에 '아아', '한국여성의 집'과 함께 출연하여 마포에 사는 청취자들에게 우리 상담소도 소개하고, 여성폭력문제, 일상속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1시간 가량 나누었습니다. 출연하신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여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성연대가 절실하다는 점에 함께 공감하고 마포지역의 여성연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전달하였습니다.

사업 review



성과 폭력의 정치학¹⁾

1994년 12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전국 7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전문상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2007년 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을 위한 최소 64시간 교육 외에 성폭력상담에 대한 보수교육 체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2007년『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1회 심화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2회 심화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2008년 성폭력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은 ‘성폭력상담을 위해 어떠한 질문을 가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강의가 기획되었다.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상담에서 운동성, 젠더, 가족, 법, 몸, 시민권, 자기방어라는 명제는 상담과정에서 끊임없이 충돌되는 화두이다. 하지만 운동성, 젠더, 가족, 법, 몸, 시민권, 자기방어에서 상담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상담과정에서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장은 부족했다.

이것이 바로 질문 투성이, 답 없는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이다. 상담이 운동인가?, 가족의 다양성을 왜 인정해야 하는가?, 여성이 시민인가? 등등 페미니즘 내에서 혹은 같은 성폭력상담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내에서도 생각은 극과극, 혹은 다르지만 하다. 여기에 서로의 생각을 자극하고, 정리해 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교육이다.

아직 심화교육이 진행 중이라 전체평가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폭력 이슈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유도’, ‘단순화된 섹슈얼리티의 관점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성의 의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깊이 있는 관점의 제시’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지나친 여성주의’, ‘정체성 혼란’, ‘대안제시 부족’ 등과 같은 평가도 있었다.

위의 다양한 평가내용처럼 강의시간에는 열띤 토론이 이루

어졌다. 참여자의 구성이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무소속 활동가, 연구 활동가처럼 다양한 만큼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강의가 끝나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혼란스러움에 어색한 웃음을 짓던 순간들이 생각난다. 아마도 이것이 곳곳에서 활동하는 성폭력상담 활동가들의 현실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만나야 하고, 다른 활동가들, 다른 단체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상담활동을 해나가는지 알고 배우는 계기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상담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더 활성화 되고,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심화교육 일정표 |

차수	날짜	시간	강사	강좌명
1	5.14(수)	14:00~17:00	이미경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반성 폭력 운동의 역사와 전망
2	5.17(토)	10:00~13:00	변혜정	성과 폭력의 정치학-젠더 감수성을 중심으로
3		14:00~17:00		
4	5.21(수)	14:00~17:00	이박혜경	가족과 섹슈얼리티의 관계-어떤 질문이 필요한가?
5	5.24(토)	10:00~13:00	장임다혜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6		14:00~17:00		
7	5.28(수)	14:00~17:00	조허은주	몸으로 읽는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변화에 대한 탐색
8	5.31(토)	10:00~13:00	최선영	반(反) 성폭력 운동과 시민권 정치의 만남
9		14:00~17:00		
10	6.4(수)	14:00~17:00	오 매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반격과 넘어사기의 구성과 실제
11	6.7(토)	10:00~13:00	권김현영	상담운동의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
12		14:00~17:00		

1) 변혜정 교수의 출간예정 책 제목을 강의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시작되다!

◎ 성문화운동팀 키라



지난 5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해의 첫 번째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은 성폭력을 화두로 운동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섹슈얼리티)’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운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쟁점으로 뽑아, 깊게 고민해보며 이후의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늘 ‘성폭력’이라는 말을 달고 활동을 하는 상담소의 일상에서 정작 ‘성폭력과 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다음에, 여유 있을 때’로 미뤄집니다. 너무 바빠기 때문인지요 ^^ 날을 잡지 않으면 ‘깊은 토론과 논쟁’은 늘 우선순위에 밀리지요.

이렇게 기획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그 첫 시간은 장애여성공감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만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사회는 이운상(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상담소에서의 발제는 키라(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공간에서의 발제는 반다, 시바(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가 맡았습니다. 플로어에는 두 단체의 상근 활동가를 포함한 다른 여성/시민 단체의 활동가들이 많이 오셔서 진지한 경청과 질문을 이어주셨습니다.

형식은 일반적인 포럼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지만, 실제 이 날의 발제를 하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장애여성공감은 서로에게 하고싶은 질문을 뽑아 서로에게 질문을 보내고, 그 질문을 각 단체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발제문을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과연, 발제 이후의 토론이 쏠쏠하게 잘 이어졌습니다.

토론 내용은 성폭력 상담이나 사건 지원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다양한 쟁점, 상담소의 ‘전문화, 특성화’ 경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장애여성공감의 ‘연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비장애인중심의 ‘의존’에 대한 개념, 소수성과 차이에 대한 고민이 ‘연대’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갖게되는 질문들, 성폭력상담소의 난립과 더불어 제도화에 대한 고민이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히 연관되는 지점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운동의 선명한 구호에 반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운동이 놓여있는 한국 사회의 맥락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운동 전략 역시 그 어려움과 복잡함에 기반해야겠지요. 섹슈얼리티/성별 이슈를 주되게 운동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단체와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운동의 쟁점을 발굴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 쟁점 포럼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운동의 지향에 대한 토론,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은 여러분과의 뜨겁고 깊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사업 review

KSVRC 미래전망 로드맵을 위한 비전 워크숍



◎ 본 상담소 부소장 이윤상

활동가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재교육과 재충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빠듯한 살림 때문에 활동가에 대한 투자가 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은 단순히 안타까운 것을 넘어, 여성운동이 재생산되느냐 마느냐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나에게 2008년도는 참 행복한 일로 시작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의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을 위한 'KSVRC 미래전망 로드맵을 위한 비전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약간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06년도부터 시작한 우리 상담소의 미래전망 활동의 연속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향후 활동의 비전과 방향을 집중적으로 재정립하는 일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론 강의, 내부 스터디, 지난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이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익힌 내용을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우리 미래전망 활동의 생산성은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상담소의 모든 활동가가 변혁의 주체가 되어 조직의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역량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주요 목표였다. 시민운동의 현재 자리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서 시작하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민하며, 여성운동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익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번 워크숍은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면서도 우리 상담소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더욱 효과가 높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활동가들이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익힐 수 있었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활

동방향, 관계양식 등을 돌아보고 서로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귀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 27일, 마지막 워크숍과 평가회의를 마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옥상을 빌려 그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는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삼겹살과 소세지를 구워먹으면서 워크숍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우리가 받았던 감동을 나누었고,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미래전망 작업을 위한 힘과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장소를 빌려주신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전망 및 워크숍 활동 성과가 이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직 개혁 및 장단기 활동목표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KSVRC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KSVRC 미래전망 로드맵을 위한 비전 워크숍》

NO.	일시	강의주제	강사
1	2.12	시민운동 좌표찾기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2	2.26	Self Leadership : 리더십 유형(DISC) 진단 및 분석	주희진 (리더십다양성센터 소장)
3	3.4	Team Leadership : KSVRC 맞춤형 팀역 구축	주희진 (리더십다양성센터 소장)
4	3.25	KSVRC 20주년 로드맵(1) :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W-ing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은 (W-ing 대표)
5	4.10 ~ 4.12	KSVRC 20주년 로드맵(2) : 조직의 미션관리, 전략적 계획수립 (BSC를 중심으로)	내부 자체진행
6	4.22	KSVRC 조직운영의 이해(1) : NGO와 펀드레이징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7	5.6	KSVRC 조직운영의 이해(2) : 창의적 기획이란?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8	5.20	KSVRC 조직운영의 이해(3) : 시민운동의 미디어 활용	고준성 (다음 미디어본부 미디어뉴스 실장)
9	5.27	시민사회운동의 노하우 : 어떻게 길을 만드는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5회 달빛시위

‘달빛 타고 노는 영희’

철수 : 영희야 안녕?

영희 : 글썸~

단정한 옷차림에 귀밑 3cm의 단발머리를 한 교과서 속 국민 여동생 영희. 그런 영희의 생활은 그렇게 안녕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성다움’이라는 성역할과 성별규범에 몸과 마음을 끼워맞추는 성별화 과정에 맞닥뜨렸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영희에게 여자의 성은 위험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유리’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여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뉴스는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영희의 부모님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영희를 보호할 방법은 ‘통제’라고 믿게 되고, 통금시간이 영희의 자유를 옥죄게 되지요. 그런 영희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길은 위험하니 일찍 들어가라”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함께 썩소를 날려보자고요.

2004년부터 매년 여름밤이면 찾아오는 화끈한 해방의 축제! 달빛시위에서 함께해요!

7월 4일 남인사마당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교실](가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성, 폭력, 성별 규범, 타인과의 관계, 상호 소통 능력 등 통합적 인권 교육의 관점에서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을 고양하고 성평등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감수성교실]은 현재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성주의자, 인권활동가, 성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선 초등학교를 비롯한 대안학교, 공부방, 방과후교실 등 교육기관을 섭외,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눈높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까. 지금은 기획단회의 중



사업 preview

춤테라피 ‘꿈꾸는 몸, 춤추는 마음’

| 기간 : 2008년 7월 12일 - 2008년 8월 30일 (총8회기)

| 인원 : 10명

| 신청 : 02-338-2890 모모

춤으로 자유로워지고, 리듬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춤테라피!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고 나만의 자유로운 춤과 몸짓으로 움직이다 보면, 내 몸을 새로운 느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까지 춤을 추는, 여성들만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에서 리듬에 당신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보여지는 몸이 아닌, 느끼고 겪는 건강한 몸을 찾는 여행, 함께 시작해 보아요!

회기	일시	프로그램 내용
1	7/12	상담소 소개 및 프로그램 목적 공유 섹슈얼리티 강의 몸, 그 황홀한 매혹의 이면
2	7/19	다섯 개의 방 탐험
3	7/26	리듬1 : 플로잉(Flowing)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내안의 여성성을 찾아서 등으로 대화하기 나누기
4	8/2	리듬2 : 스타카토(Staccato) 결정하고 행동하기 내안의 남성성을 찾아서 미러링 나누기
5	8/9	리듬3 : 카오스(Chaos) 모순을 그대로 끌어안기 여성성과 남성성의 통합 꽃이 되는 꿈 나누기
6	8/16	리듬4 : 리리컬(Lirycal) 자아를 실현하기 미러링2 나누기
7	8/23	리듬5 : 스틸니스(Stillness) 내안의 영혼과 만나기 내안의 여신을 찾아서 눈과 손으로 대화하기 나누기 88/30마무리 다섯 개의 리듬 인생 걷기 명상 나누기

[소모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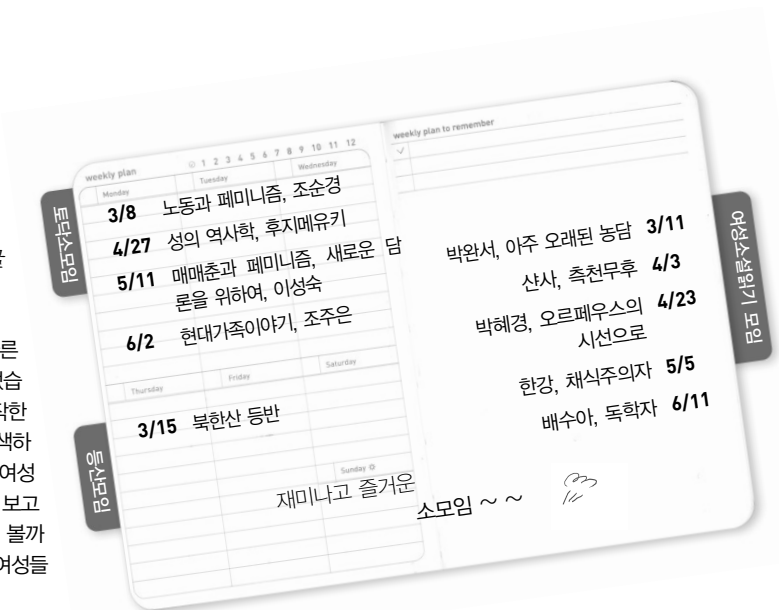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소모임들입니다.

♥ **토닥소모임** : 3·8 세계 여성의 날에도, 나쁜 한 4월의 봄날에도 토닥 스터디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성/노동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봄날의 스터디는 성매매 담론의 지형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성들의 경험을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접해 볼까 해요. 이름하여,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거죠!

토닥스터디는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컴온~

♥ **여성소셜읽기 모임** : 평론집 오르페우스의 시선으로 읽으며 소설가들이 언어 근본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작업을 언어 속에서 혹은 소설적 언어, 언어적 소설의 변형을 상상하고 만들어본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한계와 질문을 언제 느끼며 무엇으로 그것을 탐구해보고 있나?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하며 살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말랑한 대안과 쾌감을 주는 비판을 넘어 충격을 주는 도전, 기반을 흔드는 깨달음에 대해 요새 수다하고 있어요. 소셜읽기모임 다음 모임은 6월 11일입니다~

♥ **등산 모임** : 우리는 비록 서울 시내 유수 산 입구나 주말에 산 근처 역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아직도 사람들이 흠뻑뻑 쳐다보는 그런 캔버스화나 솔더백 차림의 멤버가 주요 구성원으로 와주어야 존재하는 이 시대 희소한 여성주의자 등산소모임이지만 캔버스화로도 산길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과 격월 1회 이상 산에 가지 않으면 몸이 쑸신다는 매우 미세한 느낌을 부여잡고 정기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매월 세째주 토요일. 현재 어진, 생초, 선녀, 오매 4인방 라인업이 북한산 다양한 루트공략을 주제로 s-s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멤버신청은 010-4672-1345 생초. (소정의 오디션 있습니다)



[후원한 기부]

♥ 열림터에 반가운 후원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SAMA Ladies Group(대사관무관부인회)의 김중혜, 제키님께서 정성어린 카드와 함께 경매 수익금 1,021,000원을 열림터 식구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카드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열림터 가족들의 배움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문구미정 님(영어, 수학), 가운 님(영어), 꽃다발(영어)

열림터 가족 여러분,
서울 무관부인회 회원들은 열림터에
작으나마 성의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곳에 있는 여자 어린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주시려
애쓰시고 있는 열림터에 작으나마
이 성금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열림터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며.
- 서울 무관부인회 일동 드림